

성경 공과

제3권

전진반 (Intermediate Class)



엘리아의 겹옷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3권

Intermediate Class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번역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3권 제3반, intermediate class만을 가지고 전진반, Intermediate Class로 명칭을 첨가해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 속의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간단히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본권 시리즈의 기초 1, 2반을 익혔거나 이 책 차례를 훑어 볼 때 성경 본문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면 본 반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글자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신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분이 오시는데 사용되는 “구름”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서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상응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상응의 이해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말씀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므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를 뵈게 해주고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천국의 기쁨 (Heavenly joy)을 받아 영원히 향유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읍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본서는 공동 번역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해서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의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자주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www.baysidechurch.org



차례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9
2. 뱀	창세기 3장	14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20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5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30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38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44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51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61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67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73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80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86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92
15. 빼앗긴 레와 돌아온 레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99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106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113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118
19. 엘리야의 겹옷	열왕기하 2장	124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130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136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142
23. 느부갓네살왕의 꿈	다니엘 2장	147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155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161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167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175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179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185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192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197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204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210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215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220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227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232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238
39. 일곱 썬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243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250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6:39

1

창조 제 5-6일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 온갖 짐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낚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셋날도 밤 , 낮 하루가

지났다.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며 창조자이시다.
- * 우리 마음속의 두 평면인 자연적인 평면과 영적인 평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들을 잘 조절해야 한다.

해설

우리는 제 3권의 첫 공부를 시작함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첫째, 여태껏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책은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책은 주님에 의해 그분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 영혼들의 거듭남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쓰였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나 비유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치 영혼이 육신에 담겨 있듯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글자적인 내용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창세기의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그 부분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없이 오직 상징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이 창세기 제 12장부터 라는 것은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넷째, 우리는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함은 우리를 주님과 천국으로 보다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수단이 되며,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묵상할 때만이 말씀 속의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첫 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글자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땅과 땅위의 만물을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창조 하셨음으로 요약된다. 창조의 이야기에 있는 각각의 날들은 우리가 아는 24시간으로 이뤄진 하루로서의 날이 아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서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란 생명이 지구 위에 형성되기에 앞서 주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 지구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이 형성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공기와 땅이 필요했고,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고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물, 즉 바다나 호수 또는 강이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우리가 사람인 진정한 이유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는 상태부터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를 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영혼이 하늘과 땅이라는 양면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 출발하지만(1절) 아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 없이 출발했다는 것(2절)과 이해성의 빛이 점점 드리워짐을 통하여(3절) 인격의 형성이 시작되며(6-13절)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시작된다는 것이다(14-19절).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곧 우리 영혼의 성장과정인 이유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그 내용을 살펴보자. 어린 시절의 우리는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노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배워야만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벌을 피하는 것일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알기 보다는 그 일들의 결과, 즉 상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벌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성장해가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요 질서라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해가 이뤄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가 바로 해와 달과 별, 즉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관해 배워 온 것들을 기초로 하여 인생에 대한 진정한 결정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상과 벌이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세속적인 결과에 따르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것이 바로 5일째와 6일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물이 진리와 상응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인체 내에서 물이 하는 역할과 우리의 영혼 내에서 진리가 하는 역할이 똑같도록 창조하셨다. 상응으로 바다는 기억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다에 많은 물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바다와 같은 많은 양의 지식이 담긴 기억적인 지식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갈 때 우리 안에 모아져 있던 기억적인 지식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생명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인 이유이다. 이는 주님께서 부르신 첫 사도들이 모두 어부였던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드신 생명은 새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실로 알고자할 때 우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지식들이 기억적인 지식들 속에서 발견되어 그것들이 생명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새들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을 날아다니는 모든 생각들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만드신 생명은 동물들이다. 좋은 의미에서 이러한 동물들은 옳다고 믿고 결정한 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열정 곧 의지이다. 성경에서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애착 또는 바램을 상징한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동물들은 주님께 의하여 창조된 동물들로서 선하고 유용한 모든 바램들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에 물고기들과 새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거듭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주님을 아는 능력과 그분을 사랑하는 능력을 지니며 그분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 때문이다. 인간 외의 다른 창조물들은 고정된 자연법칙이나 타고난 본능으로 살아간다. 반면, 인간은 배우는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발전되도록 창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나 둘이 합해져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되어졌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되고자하면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하며 우리의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 밑에 두어야함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며 성경의 맨 첫 절이기도 한 창세기의 첫 구절에 “하늘(heaven)과 땅(earth)”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 안의 생각과 바램들이다. 그리고 하늘이란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적 발전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늘(heaven)”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된다.

기본 상용 공부

- * 날 = 어떤 일이 이뤄지는 시기
- * 물고기 = 기억속의 지식에 관한 애착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 20) 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오 경 6) 시작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느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 13) 동물 14) 인간 15) 하느님의 모습
- 16)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느님이 쉬셨다
-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 20) 지성과 생각 그리고 애착

2 뱀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찌기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었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중심 원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자아를 신뢰함이라는 두 가지로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 * 현상(외관 혹은 가상)에 관한 교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신 서술과 연결된다.

해설

식물은 사고 또는 마음속의 것들을 표현하며, 동물은 심정 또는 의지에 속한 것을 표현한다. 나무들이란 일반적인 큰 원리들을 표현한다. 태초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과정을 따라 하나의 교회로 발달된 후에 그들의 상태는 2장에서 전하는 바대로 에덴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며, 모든 지혜와 선함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가장 큰 원리를 상징한다. 2장 9절과 17절 그리고 3장 3절을 읽어 보면, 인류의 심정 상태가 본문 시작 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동산의 중앙에 있지 않다.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상실해버렸음을 의미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알기 위한 지식을 위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원리를 말한다. “내가 옳바르다고 생각한다면 다 된 거 아닌가?”하는 표현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뱀은 동물계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애착을 표현하는데, 그 애착의 대상은 감각적 쾌락이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이나 좋은 옷을 입는 것 혹은 유희를 즐기는 것 등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애착도 제자리만 지켜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아주 배제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활에서 이탈되어 시간과 돈 그리고 정력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다른 것 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 이는 뱀이 이브에게 “너는 정녕 죽지 않으리라”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브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뱀이 이브에게 말했다 함은 우리의 의지가 시험 당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으로 그것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 입증하려는 변론을 자신 속에서 찾게 된다. 이것은 이브로부터 과일을 받아먹는 아담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선행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한다. 무화과나무 잎이란 우리의 자연적인 선함에 관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변명은 “완전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정도만 되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사 놓은 것 아닌가?”라고 끝맺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에 순진과 신뢰함으로 출발했던 아름다운 내적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주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정녕 죽으리라”라는 경고에서의 죽음이란 그들이 동산 밖으로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자아를 믿기 시작 할 때에 온갖 종류의 곤란으로 빠져든다. 가시덤불과 엉켜있는 우리의 거짓된 생각을 말하며,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방법이 진짜 쉬운 방법이고 길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 위에 떨어진 저주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려함으로 인한 인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설령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장의 제목인 뱀의 처벌에 관한 14절을 주의 깊이 읽어 보면,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애착은 결코 세상적인 것 이상 보다 높게 들릴 수 없다. 그래서 뱀은 단지 “먼지”만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뱀에 의해 상징되는 시험을 완전히 극복하셨다. 제 15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첫 예언으로서, 감각적인 것에 대한 모든 시험을 겪게 될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 때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언제나 뱀의 유혹을 거부하고 뱀의 머리를 짓부수게 될 것임을 예언한다. 여기서 머리란 어떤 것을 통치하는 원리를 말하며, 주님이 짓부수시는

뱀의 머리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민수기 21장 4-9절과 요한복음 3장 14-15절에 있는 모세와 구리 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물은 뱀이란 감각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만족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리 뱀이란 이 욕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뜻한다. 주님은 그분의 감각적인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도록 들어 쓰셨다. 우리의 감각들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들을 우리 마음의 안내자로 인식해 버릴 때, 그것들은 주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우리를 더욱 더 멀리 이끌고 간다. 이리하여 본문의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과 싸우려고 노력하면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합세하여 싸워주셔서 결국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마지막으로 24절을 읽어보자. 거룩들이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불칼이란 악을 점검하여 선을 보호하는 사랑으로부터 영감 된 진리이다. 본문의 칼이 양날을 가진 까닭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6-21절도 읽어보자. 궤 안에 보존된 십계명이란 우리가 시험과 맞서 싸우는데 첫 번째로 들어 써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나무 = 일반 원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함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

질문 정리

-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3

무 지 개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낚아, 온 땅에 가득히 붙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불고 붙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교리 요점

- *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 * 재구성과 거듭남의 교리
- * 역사의 기초로서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에 관한 생각들
- * 고대 말씀

해설

노아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태고 교회, 즉 지상에 존재한 첫 번째 교회의 마지막과 두 번째 교회 곧 고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내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삶의 과정 중 아주 초기에 거행되는 성장 과정을 표현한다. 유아들처럼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순진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에 속한 것들이 천국적인 것을 표현하여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욱 영적이며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영들이나 천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들의 마음과 모두 일치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뜻하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유아들의 유사점으로, 유아들은 언제나 그들이 가진 느낌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나타내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음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느낌들을 판단하며 조절하기 시작함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심에 젖어서 악에 빠진 후로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점검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더 나은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나빠지자 그들의 생각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향하는 길의 끝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나쁜 습관이 점차 자신을 지배하여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홍수란 태고교회의

사람들의 파멸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악함으로 인해 파멸의 지점에 이르기 직전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남기를 원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성에 한 가지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 극소수의 사람, 즉 “남겨진 자들”은 본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 안에 만드신 한 가지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함께했으나, 주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의지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분리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진리를 받아 들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고대 교회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상태이다. 이리하여 설령 사람들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에 기울어져 있다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곧 이해성을 통해서 진리가 다시 가르쳐질 수 있고 역지로라도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또 다른 좋은 습관을 이루게 되어 궁극적으로 구원되도록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고 교회 시대의 말기에 속한 사람들(창세기 6장 5절)의 상태가 극히 이기적이었던 것같이 우리 역시 그 시작은 극히 이기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배우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순종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역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순종함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재구성과 거듭남”의 과정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배 안에 태운 후 범람하는 홍수를 이겨내는 이야기는 주님이 만드신 변화가 태고 교회로부터 남겨진 선한 이들 안에서 이뤄지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표현한다. 그리고 비가 40일 주야동안 쏟아졌다. 말씀에 있는 모든 숫자는 각기 상응을 갖는다. 숫자 4란 시험에 상응된다. 그리고 숫자 10은 어떤 상태가 완전히 이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숫자 40이란 시험이 완전히 이뤄짐을 의미한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비가 멈추고 홍수가 빠지는데 150일이나 걸렸고 그 후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 지상에 그의 생활을 재건하는데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던 성경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창세기 8장 20-22절을 읽어보자. 제단이란 언제나 예배를 상징한다. 노아가 쌓은 제단은

고대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의 건설을 표현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을 갖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적인 경로, 즉 그들의 순진함과 선한 심정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같은 것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을 훈육시키실 수 있었다. 하지만 태고 교회의 말기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적 문이 닫히게 되었음을 느끼고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이로 인해 고대교회가 이뤄질 썸 언어로 기록된 가르침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스웨덴북은 고대말씀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간들은 고대 말씀 또한 잃어 버렸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성경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고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로 하여금 고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어떻게 상응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대 말씀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졌다. 이는 고대 교회 사람들의 언어가 상징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새교회인 고대 교회와 새 언약을 만드셨다. 언약 또는 계약이란 쌍방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약속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태고 교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해진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언약에 대한 표시가 바로 무지개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가 이 때 처음 생겨난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지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다만 주님께서 무지개를 새로운 약속의 표시로 삼으신 것이다. 무지개는 참 아름답다. 무지개는 태양광선이 빔방울에 굴절 반사되어 여러 색깔로 보이게 되는 자연 현상이다. 또한 무지개는 한 인간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상태를 상징한다.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류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황금시대 또는 태고 교회라고 부른다. 태양의 빛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는 곧바로 땅에 이르듯이 태고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심정 안에 직접 가르침을 넣어 주셨다. 그러나 노아라고 불리는 시대, 즉 은 시대 또는 고대 교회 때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들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방울들을 통해서만 배워야 했다. 그래서 주님은 상응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천태만상이듯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진리의 모습이 바로 오색영롱한 무지개 색깔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풍이 지난 후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무지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진리에 대한 아름답고 완벽한 상징이다.

기본 상응 공부

40 = 시험

홍수 = 삶을 파괴하는 거짓들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의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제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택하여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여 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라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라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교리 요점

- *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
- * 우상의 기원
- * 겸손과 순종은 영적 발전의 기초

해설

고대 교회, 즉 노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특성은 아담이라고 불리는 태고 교회의 특성과는 아주 달랐다. 태고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 또는 감정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에 고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성에 의해 규율되었다. 따라서 고대 교회 절정기의 사람들은 아주 슬기로웠다.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말씀의 내적 의미를 공부함을 사랑했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 보다 더 확연하고 깊이 있게 그들의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진 지혜에는 큰 시험이 동반되었다. 그 시험이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험에 빠진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대 교회

사람들의 “자기 총명을 자랑함”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지상에 존재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유망무실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고대 교회의 말기는 성경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무지개의 표시로 언약한 주님은 그 언약대로 사람들을 파멸시키지 않으셨다. 대신 주님은 그들이 잘못 사용한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거두시고 “사람을 온 땅에 흩트셨다.”(창세기 11:8). 스웨덴북에 따르면 동양에 있는 종교의 일부가 이 고대교회로부터 전래된 진리에 기초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선한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 의해서 남겨진 선한 자들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이 훈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이끄셨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맹목성에 가까운 주님께 대한 그의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다. 그는 고대 교회의 최후시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는 많은 거짓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수 있었고, 그로부터 큰 국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는 아주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받은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상속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하녀인 이집트 출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제의했고 아브람은 이를 수락했다. 우리는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갖는 것이 주님의 법이므로 아브람과 사래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고대 교회의 초기, 즉 교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 존속했을 때에는 모두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초기에 주어졌던 진리들이 거의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래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무지하여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신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무지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배우기를 거절하여 무지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행동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자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탓하지 않는 다하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것에는 언제나 인과에 따르는 나쁜 결과가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하갈의 아들은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자식을 원함을 영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선하고 진정한 것을 원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선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바램도 처음과는 다르게 점차 거짓 사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쉽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하녀였다. 성서 지도에서는 가나안 땅과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라는 대표적인 세 지역들을 볼 수 있다.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곳은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을 표현한다. 즉,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이다. 이에 대한 것은 공부해가면서 차차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1권과 2권을 통해 이집트가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함을 배웠다. 아시리아는 생각과 추론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이집트) 생각하는(아시리아) 것을 종합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는 의지를 표현한다. 간단한 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석해 보자. 우리는 처음에 성서를 읽고 그로부터 얻게 된 지식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이다. 그 후 우리는 저장해 둔 지식을 꺼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는 소가 여물을 먹고 난 후 나중에 한가롭게 반추하는 작용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서 꺼내어 곰곰이 생각한 결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서에서 온 기억속의 지식들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해당된다. 성경에 있는 여자들은 다양한 진리들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여인 하갈은 기억속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애착)을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 갖는 애착 중 하나로서 아이들의 탐구심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얻은 지식들이 진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되면, 기억속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유용한 애착이 된다. 이 진정한 목적은 본문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지식을 자랑하려 하고, 심지어 자신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해 버리고 만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래를 경멸하는 모습에 해당된다.

하갈은 질책을 받게 되자 광야로 도망쳤다. 광야란 안전함에 정반대되는 곳을 뜻한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럴 때의 광야는 마음이 거절되는 상태 또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신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방황함을 뜻한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타인을 경멸하는 이들이 흔히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에서 광야에 있는 이들이 본문의 하갈과 같이 주님께 의해 샘터로 인도되어짐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기 위해 언제나 나타나심을

의미한다.

주님의 천사는 광야의 샘터 근처에서 하갈을 발견했다. 천사란 전달자로서 말씀이 뜻하는 것을 말한다. 천사가 하갈에게 전한 첫 번째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것이었다. 이 후 천사는 하갈이 낳은 아들에 관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약속을 전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당황하며 불행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천사, 즉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감수할 때 그로 인해 아주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신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차차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천사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예언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가나안 땅 =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상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평면
아시리아 = 생각하고 추론하는 평면

질문 정리

-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방향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한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컫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례 4) 아들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5

이삭과 리브가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좋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좋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좋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반기며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 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 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라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닻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불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 곳은 네겟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어 아내로 삼았다. 이사악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교리 요점

- *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과 보다 낮은 합리적인 능력
- * 결혼에 관한 교리
- * 생명이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행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해설

아들은 진리를 그리고 딸은 애착을 표현한다. 결혼한 상태인 남편은 어떤 특정한 선을 표현하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표현하는 선에 일치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예로 이해해 보자.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함과 동시에 ‘선한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참된 선을 알기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선행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몰두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려 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우리의 선행은 단지 자연적이고 외적인 선행일 뿐이다. 즉, 영적인 선행 곧 참된 선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사라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이집트 출신의 하갈은 세상적인 자연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착)을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갈이 상징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칭찬 받기는 좋아하나 벌 또는 책임은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키게 되는 첫 번째 추론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에 기초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수준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즉,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며 그가 사라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이다.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고향, 그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났던 이들, 그들이 멈췄던 곳 그리고 누가 그 중간 지점에 정착했는가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보자. 본문에서 우리는 하란, 즉 나홀성에 대해서 읽게 된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족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가나안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시는 하느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자를 떠났음으로 맞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 중에서 이삭을 위한 좋은 아내를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삭으로 표현되는 영적 추론에 속하는 새로운 종류의 애착도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종을 보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하인이나 노예보다 집사나 간사 또는 청지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다른 기록들에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음은 그의 종이 열 마리의 낙타에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여행했음으로 짐작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능력이나 지식들이 우리의 영적 발달을 위해 올바르게 쓰인다면, 그것들은 아주 유익한 것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선용을 수행하는 외적인 것에 대한 일련의 이해성을 표현하고 있다. 낙타란 외부의 지식들을 말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외칠 때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란 지역 샘터에 멈췄을 때 주님께 징조를 간구했다. 리브가는 이 징조의 성취를 위한 것처럼 때맞춰 샘터로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고 그녀의 오빠는 라반이었다. 라반이라는 인물은 후에 야곱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선택한 것이 곧 주님이심을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리브가도 가까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본문의 줄거리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들의 여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서로가 잘 어울려야 함은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정과 지성에 속한 것까지도 서로 잘 어울려야 함을 말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결국 행복이 없게 되어 올바른 가정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가치관과 같은 신앙을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이란 진리에 상응됨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샘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을 위해 샘에서 기꺼이 물을 길어 올린 리브가의 자발성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과 일상의 행동들까지 더불어 포함된 모든 것을 인도할 진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려는 우리의 자발성을 상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을 신뢰하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종을 보냈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역시 그분을 신뢰하여 그녀가 가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게다가 리브가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지역과 보지도 않았던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서 기꺼이 고향을 나섰던 것이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억을 터전으로 하여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다.

기본 상응 공부

아들 = 진리들

딸들 = 선들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 21) 이스마엘과 이사악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느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21) 첫 번째와 두 번째 합리성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여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났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서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은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만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불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교리 요약

- * 삶의 세 평면으로는 의지와 사고, 그리고 행동평면 혹은 천적과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 있다.
- * 이러한 평면들은 자연적인 평면에서 천적인 평면으로 발달되어 간다.
- * 자연적인 평면은 겉과 속을 지니고 있다.
- * 행동속의 동기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

해설

야곱은 “열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앞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삶의 세 평면을 배웠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평면을 함유하게 된다. 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생각이 아닌 바램 혹은 동기이다. 그 후 우리는 그 바램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 놓는다. 행동은 가장 나중에 오는 것이나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바램이나 생각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이들 세 가지 평면을 상징하는 세 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발달 순서대로 있게 되는 각 평면을 표현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바램에 의하여 규율되는 때인 유아기나 초기의 어린 시절을, 이삭은 지성이 발달되거나 훈련되는 때인 어린

시절 후기나 청소년 시기를 그리고 야곱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적인 의무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때인 청년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 세 가지 평면을 표현하자면 천적과 영적, 그리고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내적 의미의 대상인 선한 삶의 발달 면에서 이 세 가지 단계들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즉, 우리는 먼저 선하게 되기를 위한 후 선한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배운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선함에 대한 자연적인 평면 또는 가장 바깥쪽 평면의 발달에 관한 것이다.

야곱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는 출발 초부터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타인이 가진 더 나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결정하도록 만든 사다리에 관한 꿈을 보았을 때조차도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우선으로 여겼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시작과 더불어 이기적인 데로 기울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들을 질서적인 삶으로 끌어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와 같은 교훈은 본문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고,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발견한 성 밖 바로 그 샘터에서 멈췄다. 샘이란 말씀의 글자를 그린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 보려고 노력할 때 첫 번째 멈추어야 할 장소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물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와 같이 당대의 모든 가축 떼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샘에 모여야만 했다. 양이란 순진하며 신뢰적인 애착을 표현한다.

성경에서 남편은 선을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의해 그려진 특수한 선에 속한 일련의 진리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이삭은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야 했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이집트로부터 아내를 맞았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의 샘터에서 라헬을 만났고 한 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기꺼이 칠 년간 더 봉사한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성서에 기록될 정도로 야곱은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칠 년이 끝난 후 그에게 주어진 아내는 레아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다시 칠 년간 봉사해야만 했다.

레아와 라헬 모두 진리에 대한 애착을 그리나 이들은 종류가 다르다. 언니인 레아는 “외적인 진리에 대한 애착”을, 동생인 라헬은 “내적인 진리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라헬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완벽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오랫동안

노력하여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를 정도로 행복해서 세월이 마치 쏜 살 같이 지나가는 듯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즉, 우리는 꿈처럼 아름다운 이상에서 미끄러져 뒤쳐지기 일쑤다. 우리는 완벽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연구하며 일하여 나날을 소비했다라도 막상 미끄러진 후에는 차선책으로 자신이 처음 꿈 꿔던 이상에 다소 덜 미치더라도 당장 가능해 보이는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눈매(안력이 부족한)를 가진 레아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헬을 원했으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야 했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전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의가 인도해 주는 길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놓아야 함을 뜻한다.

우리의 삶에 형성된 의를 행하는 습관이 가져온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 상징된다. 성경에서 자녀의 출생은 진리와 선의 생산을 상징한다. 야곱은 삶의 바깥 평면 또는 자연적인 평면에 있게 되는 순수한 선함을 표현하며, 그의 열 두 아들이란 선한 바깥 생활 곧 일상생활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선함이나 진리들을 표현한다. 먼저 레아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난다. 레아의 네 아들들은 믿음, 사랑, 선한 행위들 그리고 외적인 마음에 있는 선한 의지를 상징한다. 다음으로 두 하녀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는 보다 높은 것을 섬기려 하는 낮은 등급의 진리나 선함들을 상징한다. 야곱의 아들들 중 마지막 두 아들이 라헬에게서 태어난다. 이 두 아들은 진정한 내적 사랑과 이해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 또는 거듭남의 수단이며, 세상적인 인간 대신 영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길고 멀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족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해두기 바란다. 그 이유는 이 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후에 야곱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다(창세기 32:24-28).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상응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21장 12절에 그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있는데, 새예루살렘의 성문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후 그들의 일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들이 태어난 순서는 그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발달되는 순서이나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때만 해당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보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을 떠올리며 가장 높은 선과 진리가 마지막으로 태어나게 됨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아들 중 요셉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요셉은 하란에서 출생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한 후 태어난 아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아브라함 = 천적 또는 의지평면에서의 선택

이삭 = 영적 또는 사고평면에서의 선택

야곱 = 자연적 또는 행동평면에서의 선택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에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 2) 에사의 위협
- 3) 하란
- 4) 라반
- 5) 레아와 라헬
- 6) 라헬
- 7) 레아
- 8) 20년
- 9) 열 둘

10) 요셉과 베냐민 11) 요셉 12) 베들레헴 근처 13) 의지와 생각과 행동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썩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합니다. 10.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섯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섯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넛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아들의 이름을 므나세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댔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교리 요점

- * 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본성
- * 영적 사항이 기억 속에 든 지식의 통치자이다.

해설

요셉의 이야기에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동안의 삶에 관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셔서 그분을 미워했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온전 몇 년에 주님께서 팔리셨다는 것 등이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요셉이 거친 고난은 그가 진보하는 수단이 되어 결국 그의 가족 모두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실용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신다. 이집트란 기억속의 지식을 표현한다. 기억속의 지식이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자연계에 관한 모든 지식과 우리가 교회에서 습득하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전에 있게 되는 단순한 이해들까지도 포함된다. 이집트의 지리를 살펴보면 땅의 대부분이 낮고 편평하다. 그 땅의 비옥함은 나일 강의 범람에 의존되며, 비옥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귀금속이나 보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그 땅의 특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타국에서 수입된 금이나 은으로 세공하는 기술이 상당히 수준 높은 편이었다. 요셉의 시대 때의 이집트인들은 단순하고 평화로우며 근면했다. 그들 중 위대한 이들은 자연 학문으로 고대 시대에 여러 나라들에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이집트가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였다는 사실은 이집트가 우리의 머릿속에 수집된 지식의 창고를 상징함을 보여준다. 스웨덴북은 이집트인들이 고대 시대 때 상응에 관한 지식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고 그들의 상형문자는 상응의 지식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이는 송아지가 유용한 자연적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응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항상 보호하셨다. 그가 이집트로 팔린 것은 사실 그를 시기하는 형들의 음모로부터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이다.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또 다른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야기 예수를 헤로데 왕의 분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경고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며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려서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라고 말하여 그것이 어린 시절에 받은 훈육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의 성장을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긴 어린 시절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동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또한 이집트로 가신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삶에 관한 지식의 획득이 우리의 삶에 있는 질서 중 하나이고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 특히 성경의 글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은 꾸준히 성경을 인용하셨다. 주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듯이 그분의 어린 시절에 배워 두셨던 것이다. 우리와 다른 점은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구약 성서의 모든 사항을 기억에 담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신의 지성 속에 말씀의 지식을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야곱의 열 두 아들이란 우리가 발달시키는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애착들을 표현함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때로는 “거꾸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애착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를 말한다. 이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요셉을 처치하려고 음모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수단으로 우리 속의 보다 높은 것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속의 요셉이란 영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요셉은 그의 형들보다 더 높은 생각의 세계에서 살았다. 즉, 그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세계 속에서 살았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 관한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것들 곧 의식주 혹은 명예 따위들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관심사가 우리 속의 요셉보다 훨씬 나은 듯 여기며 그때마다 우리 속의 요셉을 제거하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장차 있게 될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 보존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요셉은 우리 기억 속의 일부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내던지고자 애쓰는 때에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삶의 일련의 질서들을 잡고 계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짐작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게 만든 우리 속의 어떤 원리도 그러한 경험을 도울 수 없다. 이는 파라오가 꾸 꿈을 이집트의 어떤 현자도 풀 수 없었던 모습과 같다. 이리하여 우리는 별수 없이 우리의 기억 속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상기하게 되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고집대신 그분의 방법에 따라 삶을 정착시켜야 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것은 파라오가 요셉을 전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모습에 해당된다.

칠 년간의 풍년이란 우리가 주님께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또는 쉽게 배우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나 주어진다. 그러나 칠 년의 흉년이란 우리가 생계를 꾸리느라 너무 바쁜 때 또는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며 미래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몰두하는 시기 등을 말한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미 기억 속에 저장해둔 원리들을 사용하면서 버티게 된다. 따라서 우리 땅 곧 인격 속에 요셉을 통치자로 더 빨리 임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년의 시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요셉 =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기근 = 지식의 결핍이 길어지는 때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 12)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8) 전 국토의 통치자 9) 아세낫 10) 므나세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12)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8

열 가지 재앙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었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애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애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애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

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술한 등애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에 등쌀에 쭈뼛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홀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애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애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술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끓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술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끓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였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여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졌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라.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펴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갹아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팔려 보낼 성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셋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셋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어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사건이 발생된다.
- *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높은 본성을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 *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해설

우리는 앞서 기억적인 지식의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배웠다. 요셉의 시대에 파라오는 우리 마음의 바깥쪽 면을 통치하는 선한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전 국토를 다스리는 자로 임명했다. 이 모습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지혜를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한 후 나일강 삼각지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함으로써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보호되었던 것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과 사뭇 다르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이 이미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게 된 상황으로 시작된다. 야곱은 우리 삶의 자연적인 평면 또는 행동 면에서 있게 되는 선함을 말한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달되어야 하는 우리속의 선함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된다. 행동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선함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교회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 그 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수준에서 정착해 버리고 “이제 이 정도면 선한 인격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자문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것처럼 여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거룩한 땅을 떠날 때 기근이 끝나면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안정된 이집트에서의 생활로 인해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해져 버렸다.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그들의 땅에 대해서 잊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하느님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불붙은 가시덤불(출애굽기 3장)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하셨을 때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물어보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의 속성 중 주님께서 거하시는 높은 부분을 표현한다. 이집트인들은 우리의 속성(屬性) 중 물질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측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대의 파라오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다.

출애굽기 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이집트인이 겪게 되는 열 가지 재앙들에 관한 것을 말해준다. 주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신 것이 아니지만, 파라오나 이집트인들은 그것들을 신의 벌이라고 느꼈다. 또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보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으로서 설령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악한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진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다시 설명하자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고생을 모세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완고함은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열 가지 재앙들은 파라오의 지성 속에 든 거짓과 심정 속에 든 악이 형상화되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누군가가 자연적인 삶 안에 정착하고 그것이 편안하여 주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잊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과 세상만을 사랑하는 측면은 서서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씹어 삼켜 결국 그 사람의 지성 속 진리를 모두 멸절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재앙들로 그려지고 있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해 버림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악을 지지하는데 진리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을 베푸는 것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즉, 그는 “선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네 형제 중 작은 이에게 베푼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논지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개구리, 모기, 이, 파리 혹은 피부병 등은 우리의 마음을 휩쓰는 독특한 악과 거짓의 형태들을 말한다. 작물과 가축 떼들이 몰사하는 것은 심정 안에 있는 선함들이 죽는 것을 말하고, 온 땅이 어둠에 덮이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영적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하는 무능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재앙인 만배 새끼들의 죽음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된 사람들은 항구적인 진리나 선함을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이루어 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상응의 측면에서 각 재앙들을 살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가 처음에 있게 된 한 두 번의 재앙으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은 이기적인 길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곤경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옛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신체적인 아픔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는 회개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고 스웨덴북이 말한 까닭에 대한 부가설명이 된다. 공포나 두려움등과 같은 것은 악한 바람의 달성을 잠시 동안 재검토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우리 안의 바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진정한 변화는 오로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파라오 =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세상 삶의 원리

나쁜 측면에서 볼 때 세상욕의 원리

이스라엘의 후손 =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마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 15) 이집트는 우리 삶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15) 세상적인 지식수준

9

메추라기와 만나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썬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이는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었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었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굵고 싶은 대로 굵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새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이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교리 요점

- * 재구성이란 무엇인가?
- * 거듭나지 못한 삶을 재구성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곤란은 무엇인가?
- *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설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재정리 해 보자. 열 가지 재앙과 과월절의 제정이 있어진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과월절 음식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먹도록

명령되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여행을 돕도록 금과 은 그리고 옷들을 내놓게 하셨다. 이후 그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고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 두 장소에서 멈추게 된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을 마라에서 가르치셨고, 그들이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엘림으로부터 바다와 나란히 가게 되는 남쪽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그들과 바다 사이에는 모래 언덕 그리고 왼쪽에는 가파른 벼랑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 행로가 메마르고 황량하여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갈망하며 그 때를 그리워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나 그분의 축복을 잇는 데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참을성이 많으시고 풍요로운 자비”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모세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첫 장을 공부하면서 저녁이 희미한 종말의 상태를 뜻하고 아침이 새로운 이해가 떠오르는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배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하게 될 이러한 두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메추라기란 우리가 의를 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칭송을 받아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저녁의 상태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뜻한다. 만나(Manna)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내향적인 행복을 말하며, 이는 새로운 영적 진보를 위한 시작이므로 아침의 상태에 해당된다.

만나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상응으로 이해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여진다. 만나는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려졌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선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며,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워 둔 진리를 특별한 사건에 응용할 때 오게 된다.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도 불린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양분이 공급되도록 물질적인 형태로 주어진 천사들의 양식이며, 이는 신성한 선이 우리를 위해 굳어져 버린 우리의 행동들 안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의미이며,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무엇이 영적인 선으로 의미되는지 알지 못한다. 스웨덴북은 영적인 선을 “진리의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응용함에 따라 진심어린 기쁨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나는 날마다 수집되고 그날 먹기에 충분한 만큼만 거두어져야 했다. 주님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일주일동안 필요한 음식물을 하루에

모두 섭취할 수 없듯이 일주일을 살아 낼만큼 충분한 선함을 일요일 단 하루 만에 흡수할 수 없다. 우리의 영적 강함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유지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하더라도 배움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이것은 하룻밤을 넘은 만나가 “구더기가 쪼고 썩는 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고 계신다. 안식일은 평화와 안식이라는 생기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상태이며, 이날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모아진 것으로 즐길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의 광야 여행 동안 만나로 먹여졌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중단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싸우는 동안에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려준다. 이스라엘 족들의 광야 여행이 “재구성”의 시기를 그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즉 갑작스런 종교적 경험으로 기독교인이 되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며, 어떤 교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 귀의 곧 개종으로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며,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명한다. 하지만 새교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개종과 구원을 믿지 않는다. 종교적 귀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머나먼 영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convert”란 단어는 “turn with” 곧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자아가 아닌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 향해야만 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사항은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체류함은 자기 탐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주님께 순종하여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한 그들의 결정은 앞서 언급된 종교적인 귀의와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들은 예정지에 도착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만 했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는 새교회의 가르침에서 회개와 재구성 그리고 거듭남이란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이기적이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이기적인 측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로 “재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재구성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실망하며 주님께 신경질적으로

반역하고, 때로는 뒤로 미끄러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전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방법)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 곧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메추라기 = 선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만족

만나 = 영적인 선 또는 진리의 선 - 선함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썬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 14)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족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나?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는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4) 재구성

10 성 막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여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너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나비는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붉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낫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쪽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꽃을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퉁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퉁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켈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켈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름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여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너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을음받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쪽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문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문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나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짰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대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교리 요약

- * 질서적인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 모든 개개인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접어든지 약 3개월이 지난 뒤 시나이 산에 도달했고, 산 아래의 평지에서 야영을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일 년 동안 체류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 중 후반기는 그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처지여서 그들이 훈련되지 않고 비조직적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조차 잊고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알려 주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그들의 하느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시나이에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이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불과 연기로 자욱한 산꼭대기로부터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 모세가 산 위로 불러 졌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과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법을 그에게 주셨다. 이 때 주어진 법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발견된다. 레위기서는 종종 레위지와 인들에 대한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레위지파가 예배에 대한 임무를 가지도록 주님께 의해서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지침 중에는 성막의 건축과 그 안의 설비들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후 성전으로 불리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계시는 장소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지성소에 있는 궤위의 속죄관으로부터 대 성직자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이 진을 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의 장소를 상징한다. 이는 아주 깊은 면에서 성막이 주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막의 형태는 우리 삶의 형태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격을 형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막의 세부사항은 우리를 위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

성막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들을 본장에서 한 번에 공부할 수는 없다. 본 반에서는 성막의 세

구역과 성막에 사용된 세 가지 금속들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 구역이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을 곧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말한다. 이 구역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생각과 행동에 상응된다. 지성소는 결코 견혀지지 않는 베일로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눈으로 보거나 생각으로 알지 못한다. 즉,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 안의 깊은 심정에 무엇이 있는지 좀처럼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성소 역시 베일로 가려져 있으나, 그곳은 성막의 예배를 위해 성직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커튼이 한쪽으로 젖혀져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역시 우리 속에 감춰져 있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대화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속에 있는 생각들을 엿 볼 수 있다. 성막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다. 즉, 우리의 행동은 모든 이가 굳이 탐색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임을 말한다. 본과의 뒤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면, 성막의 각 장소에 어떤 설비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설비들은 각각의 상응을 가진다.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속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나무는 물질적인 선 또는 유기체적인 선에 상응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자연적인 수준에서 있게 되는 선행에 대한 자극을 말한다. 그리고 나무들을 금으로 입히도록 명령되었다. 금이란 주님만이 선택시디는 인식에서 오는 순수한 사랑을 말한다. 속 덮개는 금고리가 서로 조여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전 인생을 통일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의미한다. 성막 벽을 받치는 밀받침들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면과 지적인 면의 삶을 떠받쳐 주는 것이 진리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수양 가족으로 된 세 번째 덮개의 고리들은 구리 또는 놋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막울에 쳐지는 커튼을 걸 기초도 놋쇠로 되어 있었다. 놋쇠 또는 구리는 자연적인 선을 그린다. 놋쇠나 구리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선이란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있게 되는 선이다. 이 종류의 선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서 삶을 통일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을 짓거나 설비를 위해 쓰인 모든 것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기부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격의 진정한 일부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인격 발달이 주님과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여 있게 됨을 뜻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성막과 각종 설비들을 위해 일하도록 뽑혀진 사람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붙어 넣어주시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원한다면,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성막 = 주님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여 살아감

지성소 = 가장 깊은 심정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 16)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울 8) 꿰
- 9) 젖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 13) 금은 나무를 썩우는데, 은은 팽팽하게 하는데, 동은 받침으로
-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6) 질서 있는 인간의 삶 또는 인격
- 17) 의지, 생각, 행동 18) 우리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한다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냐?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성직자 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이냐?”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두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요.”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성직자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성직자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제양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어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제앙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매순간 우리를 떠 받쳐 주고 계신다.
- *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판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 *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라는 격식을 차려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다.
- *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우리의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타애란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해설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규정 속에서 레위인들 곧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을 따로 분리해서 야영중이든 행군중이든 간에 성막을 돌보며 성막의 각종 행사를 담당하도록 명령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론이 대 성직자가 될 것이며 아론의 후손들만이 성직자 직에 임명된다고 명령되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항에 관한 충분한 확증을 갖고 있었다. 모세 역시 레위지파의 출신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며 통치하도록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고, 그분은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실제로 주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다. 그 반역은 주님을 섬기는 척했던 일부 레위인들에 의해서 주동되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동으로 하는 예배라는 의식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주님께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체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이사야 29:13).”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는 “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있기 쉬운 시험으로, 생활에서 계명에 순종함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내면에 있어야 할 진실에 대한 대체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모습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지파 소속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굽의 첫아들인 르우벤의 후손이었다. 아굽의 열 두 아들이란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킴에 있어지는 다양한 애착들을 그린다. 첫 제인 르우벤은 믿음을 표현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영적 진보는 우리에게서 시작조차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나는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느님에 관하여 배우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아 사랑에 삶의 방향을 의존하며, 그들이 사는 공동체의 표준역시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그들을 소환했을 때 성막에 오지 않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천막 문 앞에 서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필요한 지혜를 찾으려 하는 우리의 태도를 묘사한다.

오만으로 인해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즉,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고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이것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말씀 안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의 제 1장 1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의 하늘과 땅은 우리 속의 천국적인 부분과 지상적인 부분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배우기를 거절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속의 천국적인 부분은 발달되지 못하며 우리속의 지상적인 부분이 우리를 훌쩍 삼켜 버린다. 즉,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채우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발달로의 가능성마저도 꺼져 버리는 것이다. 영어 성경의 ‘pit’은 주로 지옥으로 번역되며, 히브리어로는 ‘sheol’로 음부 또는 죽음의 장소라는 뜻이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주님으로부터 단아버릴 때 남아있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물적인 생명뿐이며, 이는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것이다.

코라와 그를 지지한 회중의 대표 250명은 그들의 천막에 머물지 않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성막

앞에 집결하여 그들의 향로를 저마다 손에 가득 채워 들고 있었다. 말씀에서 지도자란 제일가는 생각 또는 개념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대표자들이란 코라가 자신의 반역을 지지하기 위해 수집한 많은 개념들을 그린다. 우리는 이 개념들 중의 하나를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코라는 모세에게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라고 항의한다. 이것은 코라가 자신을 모세와 아론과 동등하다고 내세우기 위해 사용한 진리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도 참조). 우리는 자신의 길을 쫓고자 논쟁할 때 말씀속의 진리를 하나 꼬집어내어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용한다. 스웨덴북은 이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향로란 예배를 표현한다. 향로안의 불은 예배에 영감을 주는 사랑의 종류들을 말하고, 향이란 기도를 말한다. 성막의 향로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는 구리가 자연적인 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코라와 더불어 반역에 가담한 대표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벌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버리는 것이었다. 주님으로부터의 불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영구적으로 전달되며,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 이 거룩한 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파괴토록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회중의 대표 250명이 가지고 나온 향로가 파괴되지 않고 두들겨 펴서 제단에 덮어씌우도록 한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이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와서 자신 안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희생이란 “거룩하게 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희생물이 바쳐지는 성막울의 큰 제단은 자신을 위해 선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두 번의 참혹한 광경을 제시한 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두 번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며 회중의 대표들을 죽게 한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자신의 죄과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기 아주 힘든 마치 진드기와 같은 것이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죄과는 내 과오야, 누구에게도 그 책임은 없어.”라고 정직하게 실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한 계속 끓어 올라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시킨다. 이것은 본문에서 투덜대었던 사람들을 파괴시킨 재앙과 같다.

이제 각자 본문 공부의 결론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우선 46-50절을 읽어보자. 모세는 말씀을 표현하고, 아론은 주님의 신성한 선에 관한 측면을 표현한다. 향로와 불 그리고 향 등의 상응을

고려해보면, 우리에게 재앙을 뿌리는 우리 속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확실한 처방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뒤의 질문에서 제시된 것과 대조해 보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뽑힌 회중의 대표 = 첫째가는 진리나 개념
땅 = 자연적인 마음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성직자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천막 9) 땅이 삼켰다
-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들 13) 재앙
-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지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성직자 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성직자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성직자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묵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나오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 주어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성직자 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성직자 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쎄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만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고 있는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17. 여호수아가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었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받을 적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옳은 길로 정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 * 계명들은 우리의 지침서이며, 모든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 * 주님을 신뢰함이 믿음의 시작이다.
- * 의를 행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이다.

해설

신명기란 “이름을 두 번째로 부름” 또는 “반복”을 뜻한다. 신명기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여정 중에서 시나이 산에 첫 번째 진을 친 후부터 요르단 강에 도착할 때까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에서 주어진 많은 법들과 명령을 반복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요약해 둔 책이다. 신명기서는 주님에 대한 모세의 감사 찬송으로 끝맺고 있는데,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백성들의 엄숙한 임무와 열 두 지파에 대한 그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불러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가 자신 아래 멀리 펼쳐져 보이는 거룩한 땅을 본 후 죽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모세조차도 주님에 대한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민수기 20:7-13)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전투인 아말렉족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모세는 그들이 싸우는 동안 산봉우리로 올라가서 주님께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했고 그의 팔이 들어 올리지면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아론과 후르가 그의 팔을 부추겨서 결국 아말렉을 패배시켰다. 그 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민수기 13-14장을 보면, 열 두 스파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즉시 정복하자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주님 대신 열 스파이들의 말을 신뢰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때에 의사표시가 가능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되었다. 따라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이었다.

연장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리는 여전히 대군이였다. 3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수확철에 요르단 강에 도착했으며 그 절기가 그 강의 홍수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광야 여행은 재구성되는 시기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고 진리에 순종할 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경향성과 싸우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이 길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집트에서 성장한 사람들처럼 반역을 일삼던 사람, 즉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이 언젠가 죽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험이나 곤경에 직면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가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수확철에 해당되며,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좋은 열매 곧 의를 행함에 있어서 억지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건너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인 요르단강이 있지만, 주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 그것을 건너라고하시며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도 보여주시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모세는 의무의 측면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법을 표현하고,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는 똑같은 법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거듭남의 실제적인 시작을 표현한다. 즉, 우리의 바깥 삶인 일상생활을 질서 안에 가져다놓고 우리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악을 찾아내어 쳐부수는 시기를 말한다. 이 악들은 거룩한 땅 내에 살고 있는 강한 적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주님의 법을 사용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처지는 전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새 의지는 주님께서 때가 되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옛 의지와는 다르다. 의지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거듭남으로 이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요르단」이란 이름은 “하강”을 의미한다. 길이가 2백여 마일이 조금 더되는 요르단 강은 레바논 산맥으로부터 지상의 가장 낮은 표면인 사해로 흘러 내려간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 내려 보내는 진리를 가능한 한 낮은 영적 상태에까지 내려 보내고 계심을 묘사한다. 요르단은 해가 떠오르는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선이다. 해가 뜨는 방향 곧 동쪽은 주님을 표현한다. 따라서 요르단 강으로 묘사되는 진리들은 천국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다. 즉,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가는 진리 곧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과 진리가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는 진리이다. 누구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로 원하지만 수확의 시기 곧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명료한 진리들을 장애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적들이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움츠리고 있는 악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거룩한 땅”이 악한 경향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경향성들은 위와 같이 인도하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거짓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인격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시험인 것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궤를 둘러맨 성직자들이 홍수로 넘실거리는 강안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자 강은 즉시 갈라졌다. 궤가 강 한복판에 머무는 동안 물은 뒤로 당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의 중심에 계명을 두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야 할 길을 계속 열어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이란 기초가 되는 진리를 표현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열 두 개의 돌을 메고 나와서 길갈로 가져갔다. 길갈은 거룩한 땅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진영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르단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념함으로써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1장 6-9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를 크게 낭독해 보자. 그의 임무는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지금은 물론 사후에서도 천국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요르단 = 우리에게 천국적인 삶을 소개해 주는 진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에 장애물로서의 요르단 강 = 악에서 나온 거짓들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느보산 2) 여호수아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5) 수확 철 6) 요르단강 7) 기적으로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10) 강을 건넌 기적을 회상하라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13) 과월절, 할례식 14) 싸우는 진리

13 기브온 주민들

머리말

본과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5. 또 발에는 땀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고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신다.
- *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 우리의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이다.
- * 우리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삼아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과월절을 기념한 후 예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 그들은 세겜까지 순례 여행을 하여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명령을 완료하고자 했다(신명기 27장 참조). 세겜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거룩한 땅으로 왔을 때 머물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본문에서의 여호수아도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장 30절 참조).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다. 세겜은 양쪽에 두 개의 산이 있어 천연의 원형 광장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다. 세겜을 둘러싼 두 개의 산인 에발산의 언덕과 그리짐산의 언덕에는 여섯 지파씩 나누어 서 있었는데, 이 광경은 모세가 법령을 포고할 때와 같은 대열이다. 그들은 법들이 모두 낭독되자 “아멘”으로 응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갈로 돌아갔다.

당시 거룩한 땅에 살았던 국가들 중 거인 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대교회의 잔류에 해당했다. 사실 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여서 그들의 제일가는 기쁨은 상응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응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상응의 지식은 멸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초기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자연물을 가지고 형상들을 만들었다. 이는 자연물과 상응되는 영적인 것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고대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영적 지식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후기 고대교회 사람들은 형상 자체를 예배하게 되어 결국 그로부터 우상 숭배가 발생되었고 차차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 중에는 악한 욕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무지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 많았고, 올바른 진리가 보였을 때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 중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기브온족이었다. 기브온족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는 대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추구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 방법은 부정직했으나 그들의 의도가 신실했으며 이는 후에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됨을 보여준다.

기브온족이 이용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부정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의 내적 의미는 진실이다. “먼 나라”, 즉 기브온족이 자신들이 온 곳을 칭한 먼 나라는 고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빵은 예배를 상징하는데, 고대교회의 시초에는 그것이 따뜻함과 새로움으로 영적인 선이었다. 하지만 기브온족이 가지고 온 빵은 고대 교회인들이 진정한 예배에서 방황하기 시작한 후 진정한 예배가 말라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들의 “술부대”는 그들이 가진 교리들을 상징한다. 교리 역시 고대교회의 시작 초기에는 강하고 진정했지만,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새 진리를 담기에는 부적당한 낡은 부대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마태복음 9:17참조). 그리고 “그들의 헨 옷과 헨 신발”이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해성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해를 거듭함에 따라 쓸모없게 되어버렸음을 뜻한다.

기브온 주민들은 스스로를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는 정해진 특별한 용도 없이 그저 지식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전적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끝마다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묻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왜”라고 묻는 것은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하게 되는 질문인 것이다. 어린이들이 “왜”라고 묻는 것은 정확한 답을 원하는 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것이다. 즉, “왜”라고 묻는 것은 “정신적인 호기심”의 표현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호기심”을 다정한 친구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적당한 위치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것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호기심”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를 가져오는 지식들까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혼란 속으로 끌고 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정신적인 호기심을 종속되는 위치, 즉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의 위치에 눌러 놓음으로서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기브온족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나르는 위치에 놓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성막을 섬기도록 배치되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무는 올바른 행동을 표현하며, 물은 진리를 표현한다. 간단한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기독교인은 “전쟁은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야”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인류에 의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이 수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자료의 수집과 원리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을 위한 나무와 물은 성막뜰에 있는 큰 놋 제단의 사용과 거기에 있는 놋대야를 위함이었을 것이다. 성막의 뜰이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시도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한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롭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초로 했고 주님의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했다(제 14절 참조). 비록 그가 이스라엘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브온족을 만들긴 했으나, 그는 조약을 체결하여 10장에서 보는 바대로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등 그들에게 묶이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시험과 싸워나가기야만 한다.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할 때마다 기대치 않은 것, 즉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빵 = 영적인 선

가족 포도주 부대 = 교리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길갈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 12) 그들은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2) 과월절 3) 만나가 중지됨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채웠다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8) no 9)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라
- 10) 약속을 성급히 하지 말라 11)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12) 지적 호기심

14

판관 「입다」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뚱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떼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요?”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
 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벳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
 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벳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 말이나?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단 말이나? 25. 모압 왕 시뵐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나?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 은 압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압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아왔다. 30. 거기에서 압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압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민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압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압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찌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나!” 36.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벳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압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벳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압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흥정할 수 없다.
- * 말씀의 영적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때가 있다.
- *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자신의 원하는 바와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도 포함된다.
- * 이타애는 언제나 순종이 포함된다.

해설

판관들이란 여호수아에 의해서 거룩한 땅이 완전히 정복된 후 그곳의 적들에 대하여 백성을 이끌도록 주님께 의해 한 명씩 일으켜 세워진 지도자들을 말한다. 거룩한 땅의 정복은 우리 삶의 거듭나는 시기를 그려준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삶의 생활적인 부분을 주님의 질서 위에 세우고 그러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의 심정 안에 깊이 뿌리박힌 유전적인 악들과 싸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싸움의 시작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의 적들을 발밑에 두게 되었다. 이후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들에게 할당되었고, 각 지파는 각자 지역 내에 잔존하는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명령되었다. 하지만 정적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들은 가장 남쪽 지역인 헤브론 주위의 지역을 차지한 갈렙의 후손들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착함 곧 자신들의 집을 짓고 밭을 일궈 새로운 땅을 즐기는 것에만 집착해 있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잘못된 경향성중 하나를 극복했다고 자부하게 될 때 자신의 노력을 쉽게 과대평가하며 이로 인해 자신 안의 다른 조그만 약점들을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장 엄격히 금지되었던 책무인 다른 종족과의 결혼마저도 우습게 여겼다. 이러한 일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아는 모든 장로들마저(연장자들)죽은 후에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 자신의 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잊고 마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은 강세를 얻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괴롭히고 짓누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때의 승리에 취해 우리의 악들이 모두 정복되었다고 믿으면서 나태해지면, 그 악들은 틈을 타서 점점 다시 자라 오른다. 그리고 우리가 옛적에 겪었던 시험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눈치 챘을 때는 이미 늦어서 벌써 시험에 빠져서 짓눌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시편 107편 13절에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주님께서 사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묘사되는 바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을 회상했다. 이것 역시 우리 모두 체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들어 세운 관관이란 우리가 빠진 시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도록 기억 속에 들어있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특수한 진리를 말한다.

관관시대의 대부분의 적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가나안 땅 안 뿐만 아니라 그 땅 밖, 즉 요르단 강 건너 저쪽의 적들까지도 강세를 얻어 그 지역을 재탈환 하려고 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들은 그들의 거주 지역으로 요르단 동쪽을 선택했다. 그 땅은 요르단을 건너기 전 암몬족으로부터 획득한 지역이다. 그곳은 길르앗 산비탈에 풍부한 목초지를 갖고 있었다. 요르단의 동쪽이란 우리의 바깥쪽 행동을 표현한다. 그곳에 있는 적들이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즉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 곧 거듭나는 삶을 시작한 후 질서를 따르는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져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본문의 암몬족의 공격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암몬족은 “진리의 왜곡”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말씀속의 진리가 옳다고 인정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비비꼬아 버리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한때 “안식일에는 꼭 주님의 예배에 참석해야 해”라고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함을 인정한 후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정성만큼 골프장에서도 그분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주일날 교회에만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 중에서도 외적인 종류, 즉 표면적인 시험에 속한다. 이때 주님은 말씀의 표피인 글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가져다주신다. 즉,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다.”라는 구절을 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외부적인 수준의 진리 곧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있게 되는 진리가 바로 본문의 길르앗 사람 입다로 상징되고 있다.

본문의 줄거리는 입다의 경솔한 서약에 관한 것인데, 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께 대한 꿈을 꾸자,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창세기 28:20-22).”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흥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허용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것이며, 우리의 선함을 위해 있어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입다에게 발생된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진정으로 섬김에 요구되는 것, 즉 우리의 바램을 끊임없이 포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용된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말씀의 영적인 뜻(속뜻)이 말씀의 글자적인 뜻(겉 뜻)과 정반대의 측면을 가지는 경우 중 하나이다. 글자적인 뜻으로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입다로 하여금 인간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참혹한 주님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더욱 상기해야 할 사항은 입다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침을 당연하게 여겼고 입다 역시 그것을 잘못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때처럼, 입다와 그의 딸 역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의 표시로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마치 올바른 것처럼 믿게 되어서 저지르게 되는 잘못은 주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도록 허용하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하게 된 경우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믿는 대로만 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속뜻 곧 내적인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딸이란 애착, 즉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본문을 보면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다의 외동딸이란 입다가 당시 가졌던 유일한 애착을 상징한다. 즉, 그는 서자로 태어나서 힘센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유일한 애착은 출세나 성공뿐이었

다. 성공 곧 그에게 줄 만족감인 승리에 대한 애착이 그의 외동딸로 표현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만족감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상기해야 할 것은 번제물이다.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이란 우리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모든 선한 특질들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애통해하도록 입다의 딸에게 허용된 두 달이란 우리속의 자아만족을 주님께 바칠 제물로 만들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아만족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에게 생긴 관습이란 우리가 주님께 한번 바친 제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나타나는 효과를 그린다. 이리하여 판관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삶의 표면에 흐르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판관 = 말씀에서 비롯된 특별한 용도를 가진 진리

길르앗 = 바깥 삶에 있는 선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2) 판관을 세워 주셨다 3) 입다 4) 요르단 건너편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7) 입다의 딸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판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룩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불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불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불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불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성직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나?”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때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성직자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얹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얹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멧을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젖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밭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멧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블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 * 말씀의 진리는 쌍날을 가진 검이므로, 선한 이는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파괴한다.
- * 사랑과 선한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 *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해설

우리가 판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에 대한 의무를 경솔히 여기고 그분 없이도 선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곤경과 역경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실제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우리가 겪게 될 역경들 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의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과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본문은 사실상 사무엘에 관한 것이다. 사무엘은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일제히 회개하는 상태에 돌입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들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로서 인정된 사람이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을 섬기는데 헌납된 상태였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의 일들을 돕기 위해 고령의 엘리에게 데려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게 대한 메시지, 즉 엘리가 그의 아들의 악행을 방관했음을 견책하셨고 성직자 직을 그의 가문으로부터 거두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어린 사무엘이란 우리 속에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심정상태인 주님에 대한 순진과 신뢰가 다시 꿈틀거림을 표현한다. 이 꿈틀대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만심에 젖어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는 수단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블레셋이다. 이때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만큼 세력이

켜져 있었다. 블레셋이란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삶으로 주님께 순종함이 없어도 구원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시험을 표현한다.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존재한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솔한 생각중 하나는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소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도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선한 사람임에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구원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음은 금방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련이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며 그분으로부터 쉽게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성직자가 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으로 진정한 예배가 극도로 모독되어 블레셋에게 쉽게 약탈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을 찾는 대신 그들의 전투를 위해서 전투지역으로 궤를 옮겨 놓았다. 궤를 전쟁터로 가져다놓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상태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나 해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거나 미신에 기대보려는 것과 같다. 그들은 지성소로부터 궤를 꺼내다가 전쟁터에 내려놓았다. 주님의 권능이 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존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즉, 궤는 이스라엘을 그 전투로부터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궤는 블레셋 군에 의해 포획되고 그들의 땅으로 옮겨졌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궤란 우리가 계명을 아주 막연하게 마음에 지니고 있음을 그려준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거룩한 어떤 것임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스스로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궤가 없는 성막이 그 후로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몸만 계속해서 교회에 들락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든 계명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오지 않는다. 블레셋의 수중에 있는 궤는 그들에게 내려진 세 가지 재난들의 원인이었다. 첫 번째 재난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땅에 처박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인 손과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물고기의 형상인 몸만 성한 채 있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냉혈동물이다. 따라서 물고기는 지식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물고기 형상에 사람의 머리와 손을 더해 놓았다는 것은 예배에 알맞고 인간처럼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궤의 출현만으로 이러한 가상을 상징하는 다곤 신상은 파괴되고 말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계명을 읽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단순한 지식 이상의 어떤 것임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은 종기였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발진은 불순물이 피부에 접근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계명은 우리의 감춰진 악들에 빛을 비추어 준다. 작물을 파괴하는 쥐떼란 우리가 블레셋 족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탐닉하게 되는 수많은 작은 악들을 상징한다. 쥐떼가 작물들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악들을 탐닉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우리 안의 선들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옴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심정상태로 되돌아옴을 그린다. 우리의 새로운 "수레"란 우리의 생활 안에 계명을 중심으로 삼게 되는 새로운 사상을 말하며, 암소란 그 새로운 사상으로 유용한 삶을 이루어 내기 위한 새로운 애착을 상징한다. 뒤에 남긴 송아지들은 과거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즐기고 아꼈던 자연적이며 이기적인 형태의 애착들이다. 금으로 된 종기와 쥐들이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타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습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배워줬다는 우리의 결심을 말한다. 숫자 다섯이란 "아주 적지만 그래도 충분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선함의 시작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송아지에 대한 암소의 울음소리란 우리가 과거에 즐겼던 이기적인 쾌락이 이제 더 나은 상태로의 진입을 위해서 계명에의 순종을 스스로 허락함에 따라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갈망들을 말한다. 궤가 벧세메스에 도착하자 암소를 번째로 드리는 것이란 주님께 우리의 애착을 헌납함을 의미한다.

궤는 첫 도착지인 벧세메스에서 머물지 않았다. 벧세메스는 레위인들의 성읍 48개중 하나였다. 48개의 성들이란 거룩한 땅이 다른 지파들에게 분할될 때 영토 대신 그들의 소유물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다. 벧세메스성은 블레셋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본문에서 궤가 벧세메스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시작 후 갖게 되는 예배의 첫 심정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궤는 이내 또 다른 레위지파의 성인 키랏여아림으로 옮겨졌다. 이 성은 거룩한 땅의 보다 안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궤는 다윗왕이 예루살렘으로 안치될 때까지 그곳에서 20여 년간 모셔졌는데, 그 의미는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블레셋 = 삶이 없는 지식

다곤 = 자기 총명에 빠진 자만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궤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성직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궤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궤와 같이 있던 블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궤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블레셋 사람에게 궤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궤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궤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궤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블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블레셋은 궤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 2) 팔레스타인
- 3) 궤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 5) 빼앗겼다
-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 7) 궤를 되돌려 보내자
- 8) 성직자와 점쟁이들
- 9) 새 수레
-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 11) 벳세메스
- 12) 순종 없는 지식
-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16

사울과 요나단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성직자로 있던 엘리의 중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야가 예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

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므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게 쫓겨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불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불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불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발을 반 이랑 갈아 찢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벳타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불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성직자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불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성직자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불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불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

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 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불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불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썰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썰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흠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썰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불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성직자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불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뭇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블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블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교리 요점

- *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이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도록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절김은 우리의 안목을 좁게 하여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들을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왕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 *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이루어낸다.

해설

사무엘이 고령이 되자 그의 아들들은 엘리와 아들들처럼 부패해져서 그의 높은 수준을 받들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상태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되는 문제들에 직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실질적인 가르침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내려오는 것, 즉 피부로 느껴질 만큼 명백한 진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왕이란 지배하는 원리 곧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원리를 상징한다.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를 상징한다. 사무엘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이유는 사무엘로 상징되는 심정상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에 불만족해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실망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도록 한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실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못 백성들의 키가 그의 어깨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장대하며 힘이 센 용사였다.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국가로 있는 동안의 이스라엘을 통치한 세 왕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할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로부터 갖게 되는 우리의 원리는 우리의 경험과 성숙도에 따라 자라며 변화된다. 세 왕들 중 첫 왕인 사울은 우리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원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마치 그것의 전부인 듯 느끼고 모든 것을 결론지어 버리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물의 겉만 보고 사물의 속까지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사울은 성급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암몬족이란 우리의 일상적인데 있는 시험 곧 우리 삶의 표면에 있게 되는 시험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적은 블레셋이었다. 블레셋이란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나는 세례 받은 교인으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조금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주님께서 봐 주실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따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시험은 우리의 내적인 시험 중 하나에 해당되며, 사울이 상징하는 미숙한 원리로는 이러한 내적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없다.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진영의 맞은편인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적과 싸워야 할지 막막해 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사울을 버리고 슬슬 빠져나가 동굴 같은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사울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발전을 이뤄주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추론인 자연적인 추론이다. 이 첫 추론은 짧은 안목이라는 결점을 지니지만 경험으로 배운 교훈을 인정하는 자질을 갖고 있다. 즉, 원인은 보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상징하고 있는 바다. 요나단은 선조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과거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기에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적들을 그분께 순종하는 극소수의 무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무기당변에게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장담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요청한 징조를 받았을 때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공격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무기 당변은 가파른 바위를 기어 내려간 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반대편의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요나단은 그의 무기 당변병과 함께 단 둘이서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요나단의 승리는 사울과 그의 군대로 적들을 참패시키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이 거둔 승리의 진정한 원인은 주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벌벌 떨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수차례 사용하신 방법이다.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순종하면서 우리 속의 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과감히 공격해 가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처럼 여겨졌던 시험이 우리의 생각보다 힘들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며 전진을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켰던 과거의 생각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사울은 또 하나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그는 블레셋 군에 대한 추격을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의 군대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허기진 나머지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결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 부치지 않음을 공부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어 영적인 진진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갖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요나단이 멈추어 먹은 꿀로 표현되어 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보다 슬기로웠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명령 불복종 죄로 요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에 관한 예증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여기는 자들이 고분 분투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해 하거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금욕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분께서 준비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 쉬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고 일생을 고단하게만 사는 자들을 본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과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편협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고단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의 삶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원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기본 상응 공부

왕 =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

요나단 = 경험에서 얻은 지식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었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불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 17)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여서 3) 암몬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통치하는 원리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퀘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퀘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퀘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퀘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퀘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퀘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퀘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퀘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느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느님의 퀘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퀘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퀘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벤테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퀘를 오벤테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벤테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벤테돔의 집에 하느님의 퀘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퀘를 오벤테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퀘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황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퀘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퀘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퀘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불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교리 요점

- * 잘못된줄 알고 저지른 행동은 죄이다.
- * 우리에게 “자연적인 수준”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
- * 하느님의 법은 영원하며 인간의 바람에 맞춰서 해석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 * 우리는 시험을 추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해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얼마 동안은 사울의 총애를 받았으며,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영원한 친구의 맹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챈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후에 이 사실이 확인되자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권유했다. 다윗의 망명생활동안 다윗의 주위에는 많은 용사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과 더불어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울을 밀어내고자 하는 책략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충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거룩한 땅 남부 지역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반면에 북부지역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 후 다윗은 칠 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다. 그러던 중 이스보셋의 수하들이 그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북부지

역의 백성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환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윗은 통일국가의 왕이 되어 전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뒤 다윗은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그의 수도로 만들었으며 그의 집권 40년 중 약 33년을 그곳에서 통치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려주고 있다. 본문은 과거 블레셋 군이 법궤를 되돌려 보낸 이래 모셔졌던 키랏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새 성막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본문의 서두에서 저지른 범죄에 형량이 맞지 않는 처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을 보게 된다. 우리는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마저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인들은 궤와 그것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하며 돌봐야 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즉,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법궤가 레위 인들의 어깨에 메워져 옮겨졌더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며 우짜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여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짜는 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선 듯 손으로 붙잡았는데, 이는 우짜가 평소 궤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음을 무의식중에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짜가 그러한 큰 벌을 받은 까닭은 그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이유 곧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이 법궤와 함께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우짜의 태도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계명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당시로 보면 올바르며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여 무언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짜의 이야기에서 있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법이 영원하며 인간의 바램에 걸맞도록 재해석되거나 바뀌지 않음을 인정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짜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위에 인간의 견해를 얹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적인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짜는 즉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던 것이다.

우짜가 죽은 뒤 궤를 모시려 했던 것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은 우리가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실감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마음 내키지 않으며 어떤 내적인 저항감을 느끼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이나 징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다윗의 공포를 가시게 하기 위해 궤의 권능이 오벤테둠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리하여 다윗은 궤를 모시는 적절한 절차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모셔왔고, 법궤와 동행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여정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역대기상 15:11

참조).

우리가 역대기하 1장 3-6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는 견고한 “다윗의 성”에 궤를 위해 세운 성막은 본래의 성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성막은 당시에도 기브온에 있었고 성전이 마무리 된 후에까지도 거기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 안에서 천막은 사랑에 근원하여 예배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우리 속의 악들을 표현하며, 적들과의 전투란 시험과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가 시험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생각의 중심은 항상 계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어야만 한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탄과 따지려 들기보다는 진정으로 선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아주 간단한 성경의 인용만으로 악마에게 대답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뒷부분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궤가 성으로 모셔지는 동안 궤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을 경멸함으로 인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읽게 된다. 미갈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는 동안 사울에 의해 다윗의 아내로 주어졌다. 미갈은 주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애착을 그리고 있다. 즉,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로 있어지는 자연적이며 자기 신뢰적인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애착을 상징한다. 사실 이런 종류의 애착은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열매”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미갈에게 그러한 저주가 내려진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텐트 또는 성막 = 사랑으로 예배함

이스라엘의 적들 =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레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레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레를 모셨는가?
- 15) 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레
- 10) 키랏여아림 11) 레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 15)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함

18

성전 건축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성전의 세부 사항은 제 2반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으므로 다른 반은 2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6장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들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나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룩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룩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 가며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돈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돈을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룩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다가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교리 요점

*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준비되는 재료들로 지어진다.

- * 진정한 지혜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다.
-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밖에 없다.

해설

다윗은 전투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정복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막으로 언약궐을 안치하도록 허락되었지만,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본 관계로 성전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시험과 싸워 나가야 하지만 투쟁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며 단지 천국적인 인격의 건축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보좌위에 앉게 되었을 때 기브온으로 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장 먼저 행했다. 기브온은 옛 성막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곳으로, 성막과 그 안의 각종 기구들이 그때까지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비록 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정규적인 예배 행사가 그 성막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솔로몬은 그곳을 보자 우선적인 예배의 장소로서 간주했다. 솔로몬은 그곳을 왕래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헌신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대로 그가 유명한 꿈을 가지게 된 이유이며, 그는 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선택하는 슬기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해력이 있는 심정이란 진정한 지혜와 같은 것으로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능력이며 의를 행하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후 아주 유명해져서 각국의 왕이나 여왕, 특히 세바 여왕의 경우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왔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이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말한다. 성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름을 행함으로서 생산되는 선을 재료로 하여 주님께 의해 은밀하게 건축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 어느 하나를 기억에 되살려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돌”을 다듬고 있는 것이다. 제 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자. 성전 건축은 7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존재의 건축에도 7일이 걸린 것과 같다. 그 이유는 7이란 숫자가 거룩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성을 상징하고 다윗은 진리에 대한 영적 이해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의 삶을 진리에 의해서 규율해야함을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사울과 다윗으로 묘사되고 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할 때를 상징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님을 기쁘게 헤드리기를 위하여 의를 행할 때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의를 행함이 습관화되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서 삶 자체가 의로움으로 가득할 때는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은 두 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막은 어린이 같은 상태에서 비릇된 마음으로부터의 예배를 표현한다.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항구적인 건축물임으로, 진리를 이해함에 기초를 두고 주님을 더 성숙해진 수준에서 영접하는 것을 표현한다. 돌 뿐만 아니라 송백나무와 전나무가 띠로의 왕 히람의 협조 하에 레비는 산으로부터 공급되어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히람이란 세상적인 지식들을 통치하는 올바른 원리를 상징한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으므로 다윗의 집을 위해서도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다. 본문에서는 동명이인인 히람이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다듬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도 유용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시온 산에서 모리아 산으로의 위치 변경에서도 발견된다. 이 두 산(언덕)은 모두 예루살렘성 안에 있다. 시온산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역으로서 교회의 “천적” 원리 곧 선함을 사랑함을 뜻하며, 모리아산은 교회의 “영적” 원리 곧 진리를 사랑함을 말한다.

성전의 계획과 지분율은 성막의 것과 똑같았다. 그러나 성전에는 제 7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가구들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속의 진리들을 응용해 갈 때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행동적인 삶에 있어서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
솔로몬 =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함

질문 정리

-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 13)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 13) 사울 - 의무감에서 진리를 순종함
다윗 - 존경심에서 진리를 순종함
솔로몬 - 사랑함에서 진리를 순종함

19

엘리아의 겹옷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아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3. 베텔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겹옷을 벗어 말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뿔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뿔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겹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겹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려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군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줄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퇘지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교리 요점

- *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 발휘된다.
- *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 * 말씀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미로 전해짐을 알게 되면, 말씀의 글자는 우리 안에서 더욱 세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해설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선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으나 이미 세상살이에 맞을 들인 우리의 이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곧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온갖 종류의 변명을 모색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 따라서 유다왕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의 이성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에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더욱더 악독해져 갔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자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긴박한 위협에 대해서 주님께 말하며 구원을 청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되돌려 보내서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다. 본문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명령된 사명을 이루어 내는 장면이다. 엘리사는 한동안 엘리야의 제자와 종으로서 그와 동행했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엘리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 이제 자기를 따르는 것에서 되돌아가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거절했다. 그들이 여행을 출발한 길같은 예리고 근처에 있는 곳이 아닌 베델의 북쪽에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로 먼저 여행한 후 예리고로 가서 요르단 강을 건너갔다. 성경의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두 예언자의 여정은 가장 높은 평면에서 가장 바깥쪽, 즉 가장 낮은 평면으로의 여행이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내려와 도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와 주님과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평면이 바로 가장 바깥쪽 평면인데, 말씀의 글자를 단지 과거 시대의 유물이나 역사서로 간주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생활에 응용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그에게 새로운 확증이 주어졌다. 말은 총명을, 수레는 교리를 상징한다. 교리란 우리의 총명이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조직화된 가르침으로서 우리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운반해주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하늘까지 운반하고 있다. 불은 신성한 사랑을,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는 말씀을 상징한다. 더욱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높은 이해성으로부터 밝혀지는 말씀을 뜻한다. 엘리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엘리야를 보았을 때 엘리야의 권능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권능을 주게 되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옳고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깨달아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 말씀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진정한 기적들을 이루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고 그 의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면, 말씀은 새롭고 더 위대한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엘리야의 겹옷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그는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겹옷을 말아 가지고” 강물을 내리쳤다. 그 뒤 엘리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삶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말씀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말씀의 어느 구절만을 특별히 믿고 싶어서 혹은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이유로 끄집어낸다거나 또는 어떤 구절만을 선택하여 확대시켜 삶에 적용하거나 설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여 나머지 구절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씀속의 내적 의미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권능은 글자적인 의미 안에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적기에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배양해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부분에서는 엘리사가 예언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초기에 있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예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 예리고는 지상의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의 머리 부분 근처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예언자 수련생들이란 우리 삶의 가장 낮은 평면인 감각적인 욕구만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묘사한다. 그러나 진리가 이렇게 낮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엘리사가 준비시킨 새 그릇에 가득 담은 소금은 쓴 진리를 달게 해 주었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됨을 뜻한다. 소금은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을 상징하고, 진리를 배우기만하면 그 즉시 삶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진리는 우리에게 단맛을 주며 우리의 삶을 열매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꺼져라”하고 놀려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섬멸하되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섬멸시키라고 말해진 부분을 제외하면(시편 137:9 참조), 아이들이 나쁜 의미로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순진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무지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시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선함이 시작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이 악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들의 악함이 시작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머리털은 생명이 있는 신체 부분 중 가장 바깥부분으로서 우리의 가장 외향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예언자의 머리털은 가장 바깥 형태에서 계명에 순종함을 표현한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계명을 배워야 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함에 대해 코웃음 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의 글자를 경솔히 다룸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코웃음 곧

놀려댐은 우리들을 더 큰 외향적인 악들로 끌고 간다. 이것이 숲에서 나온 곰으로 그려지며, 이 놀려댐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예언자의 겔옷 = 말씀의 글자

소금 = 선을 위해 진리를 바램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아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14) 분단된 왕국의 두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손함의 표시 13) 꿈이 찢어 죽었다 14) 지성, 심정 15) 말씀의 글자 16) 엘리야 - 순종함에서 말씀을 공부함 엘리사 - 내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공부함

20

요 시 아 왕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폼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성직자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성직자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쏘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성직자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성직자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캄, 미가야의 아들 악불, 공보대신 사반과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성직자 힐키야와 아히캄, 악불, 사반, 아사야는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 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였다. 19.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정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 와

이 말을 이전에 아뢰었다.

교리 요점

- *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생존해 있기 위해서는 이해성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
- *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오도록 방지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속을 서서히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 *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 * 우리가 우리 속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고쳐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이 악했던 반면 유다왕국에는 소수의 선왕들이 있었다. 앞서 우리는 유다가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해성적인 측면을 상징함과 우리가 사랑의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때는 솔로몬의 통치로 상징됨을 살펴보았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에는 단번에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하락에 대한 최초의 징조는 마치 뱀이 수풀 속을 소리 없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추론이 우리의 이해성 속을 슬슬 기어 다니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선의지는 여전히 실재한다. 열왕기상 제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까지 성서의 이야기들은 분열된 왕국들의 하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경에 있는 이 왕국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엮여져있으면서 열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져 가고 있다할지라도 이 둘은 사실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 속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이기심은 우리 심정 속을 아주 조금씩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가 그 잘못된 행위가 주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면,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하기 보다는 “글쎄”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친구의 변론에 귀를 열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친구가 권유하는 잘못된 행위를 즐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찾게 된다. 즉, 우리는 단지 한 번의 경험삼아 본다는 추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해매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나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들이 결코 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준이 이미 우리에게서 아주 멀어져버린 상태이다. 이때에 우리는 마치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버스가 왔다가 떠나버린 것처럼 느끼게 된다. 스웨덴볼에 의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구성을 피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다.

앞서 우리는 유다왕국의 왕 중에서 히즈키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유다 지역에 만연되어있는 우상들을 짓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세워 놓는 “산당”까지 부셔버렸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에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살게 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상이 우리의 이해성을 완전히 채웠을 때를 표현한다. 물론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완전히 몰들었다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다왕국이 그래도 지속되었던 상황이 상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 깊은 곳의 선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지를 방어해 줄 이해성 속에 남겨진 생각은 이제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유다왕국 역시 북쪽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극도로 약해져 많이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표현된다. 히즈키야 왕의 아들 므나쎄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부셔버린 산당을 재건하도록 했고 모든 우상을 다시 세웠다. 심지어 그는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웠다. 또한 그의 아들 아몬은 겨우 2년만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악했다.

이렇게 타락해 가는 유다왕국에 마지막 선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아였다. 그는 8세에 왕이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대성직자의 특별한 보호 하에 있었다. 요시아의 초기 시절에 관한 것은 제 11-1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마태복음 18장 1-3절도 읽어보도록 하자.

요시아의 첫 업적은 성전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성전은 영적인 인격을 상징한다.

우리는 악한 심정상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게 될 때 스스로의 심정을 순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검증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정직하고 겸손한 노력은 본문 4-7절에서 뚜렷이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요시아 왕의 노력의 첫 번째 결과는 “법전”의 재발견이었다. 이 법전은 계명과 더불어 다른 법도 포함되어 있는 모세의 책이었다. 이 법전의 발견은 우리가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상당히 떨어졌음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을 의미한다.

요시아는 나라가 되어 가는 정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여예언자인 홀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요시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백성들의 사악함이 피할 수 없는 처벌을 초래케 할 것이나 그의 즉위 기간 동안은 주님 앞에서 보여준 그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파멸은 면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3장은 요시아가 어떻게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으며 성전을 깨끗케 하고 과거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상까지 파괴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후 그는 과월절을 기념했는데, 이 축제는 과거 많은 세월동안 있어 온 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제였다. 하지만 요시아의 이러한 노력도 그 땅에 범람하는 악의 물결을 잠잠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23장 29절을 보면, 요시아가 통치 31년째에 유프라테스로 올라가려는 이집트 왕을 맞아서 자신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을 막고자 했으나 그 싸움에서 전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왕이란 언제나 자연적인 지식에 의존하려는 원리를 상징함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을 세상적인 것에 다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원리에 대면하여 똑바로 설 수 없게 된다. 이집트왕은 유다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고, 다른 왕의 아들인 엘리야킴, 후에 여호아킴이라 불린 사람을 왕으로 옹립해 공물을 바치게 했다. 여호아킴의 통치기간 동안 바빌론 왕은 이집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유다로부터 공물을 취해갔다. 여호아킴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 후 얼마 뒤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극빈자를 제외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서 결국 유다왕국은 멸망된 것이다. 바빌론이란 “자아욕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스스로가 모든 이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인물로 느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주 뿌리 깊은 악이며 늘 경계해야 할 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평가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섬기는 자의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점점 강해져 지배욕이 되는

것이다. 한 인격의 몰락 과정에 있어서의 아시리아는 거짓추론을 표현하는 바, 이 추론이 처음에는 우리 이해성을 포로화 시키면서 이해성 속에 있는 진리의 보루(성벽)를 헐어 낸다. 그 다음 이기적인 사랑과 한 계열인 지배욕이라는 악이 우리의 심정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아시리아왕에게 이스라엘(이해성)이 붕괴되고 바빌론왕(지배욕)이 유다(심정)를 침공하는 사건에 담긴 의미이다.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간 지 70년 후 백성들에게 귀환이 허용되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복원되었다. 그들이 귀환된 이유는 400여년 후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대신 아시리아왕이 강제로 그 지역에 이주시킨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임을 기억해 두자.

기본 상응 공부

아시리아(나쁜 의미에서) = 거짓 추론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6)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헌금으로 7) 율법책
-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텔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월절
-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16) 이스라엘 - 지성, 생각 유다 - 심정, 느낌 17) 우리의 인격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성 서 본 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열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내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였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신다.
- * 시편서는 새교회의 정경에 속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 누군가의 마음이 이타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계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해설

시편들은 노래들로서 성전에서의 예배에서 찬양으로 많이 쓰였으며 다른 때에도 많이 불려졌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거룩한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시편을 거론하셔서 시편이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음을 언급하셨다(누가복음 24:44).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우리를 위해 시편의 내적 의미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본문은 시편 91편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즐겨 암송하며, 그들 중 일부는 암송하는 이상의 것도 알고 있다. 이 시편은 배워두면 아주 유익한데, 이는 주님과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해치게 될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음을 거듭하여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 쓸데없이 많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곤경에 처하여 걱정에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허다하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헤쳐 나가려고 한다면, 근심과 두려움 등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자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늘 주님과 그분의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도울 채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닥쳐오는 곤경에 용감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언제나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위험들의 속성과 주님께서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다는 것이다. 제 5절과 6절에서 위험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낮에 오는 것과 밤에 오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빛이 있는 낮이란 우리가 사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상태를 상징하며, 잘 보이지 않는 밤이란 무지한 상태를 상징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 악과 거짓임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심정 속을 기어 다니는 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것을 몰라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짓 사상들도 즉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밤중에 퍼지는 염병”이며,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이다. 그 다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부동켜안고 있는 못된 바램, 즉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즐거워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 또한 우리는 뻔히 아는 어떤 거짓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핑계나 구실을 만들어 그것을 옹호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한마디로 거짓을 우겨대는 모습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이며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다. 주님께서는 악과 거짓의 다양한 양상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분께 가까이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즉, 말씀에서 얻은 진리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제 13절을 살펴보다록 하자. 악의 권세는 사자와 사자 새끼로, 거짓의 권세는 독사와 구리뱀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을 얼마나 갉아갈지 찢어 놓는지 또는 우리 속에 거짓 사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해성 안에 어떤 독을 퍼트리게 되는지를 각자의 경험을 통해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제 3절의 “죽을 병” 역시 우리 안의 진리를 갈아먹어 치우는 악이며, “사냥하는 자의 덫”이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이제 제 11절과 12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은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호천사가 보호하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글자대로 암송하되 이 구절 속의 돌이 “진리의 거짓됨”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구절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돌이란 진리를 의미하지만, 이 구절에서의 돌은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돌, 즉 걸어가는 발의 힘보다 더 힘센 돌인 뿌리가 있는 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돌은 진리가 거짓이 된 곧 뿌리가 있는 거짓화된 진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마태복음 4장 5-7절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세 번 받으신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의 악마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여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상황이 바로 “진리의 왜곡”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뿌리 있는 진리 곧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다.

주님은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꾸하셨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그들의 안내심의 정도를 시험한다고 느끼는 경우를 듣게 된다.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이기적인 방법으로 일을 벌려도 전혀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기며 일을 벌려 나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시편의 모든 약속이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그분께 접촉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만 해당된다. 우리의 육체는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곳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우리의 영혼이 속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곳을 선택해가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이기적으로 되도록 방치하고 자신만의 방법이나 길에만 몰두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을 찾고자 성경을 뒤적거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거처를 두게 된다. 그 이유는 이기심이나 거짓된 추론들이 바로 지옥의 삶이며 그곳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방법 곧 섭리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로 그들의 고충을 찾으며 그들의 영혼이 행복해 지도록 노력해 간다면, 우리 영혼의 거처는 당연히 천국에 있게 된다.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한마디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실 수 있게 된다.

본문의 시편은 장수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히브리 원전에서는 “오래 살 수 있게

함”이 “낮들의 길이”로 말해지고 있다. 즉, 낮이 표현하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시편의 마무리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나는 대낮처럼 훤히 그 사건을 알고 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낮은 밝히 앎 또는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밝히 아는 상태가 마음껏 길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므로, 이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 * 낮 = 이해하는 상태
- * 밤 = 무지의 상태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느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용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22

성전에서 솟는 샘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성 서 본 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뺨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밭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해염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교리 요점

- * 모든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 * 말씀은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되 말씀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 * 선한 일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설

네 명의 대 예언자들 중 첫 두 명은 유다왕국에서 살았다. 이사야는 히즈키야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살면서 그 왕국의 종말을 예언했으며, 왕국의 종말이 성취됨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바빌론 왕에 의해서 고향에 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는 계속 그 땅에서 예언했으나, 후에 그곳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이집트로

강제이주 당했다. 따라서 그의 마지막 예언들과 5편의 시로 된 애가는 이집트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했다. 예언적 영감이 거룩한 땅 내에서만 주어진다고 믿었던 고대 히브리인들은 애가서와 다니엘서는 그들의 정경(canon)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에제키엘서는 그들의 정경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에제키엘이 예언하기 전에 이미 성직자였고, 본문에서 기록된 바대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들려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루살렘에 관한 에제키엘의 환상 중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 해당된다. 에제키엘은 포로생활을 한지 5년이 지난 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고, 본문은 25년간의 포로생활 동안 그에게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본문은 “그의 영이 들리어져 고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매우 높은 산에 내려졌는데, 그 산 위에는 남쪽으로 성 만큼 큰 건물이 한 채 서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거기서 뿔쇠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노끈과 막대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이 사람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세세하게 측량했다. 측량에 대한 이모저모는 제 40-41장에 기록되어 있다. 에제키엘서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모저모는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솟는 물에 관한 환상이 뒤따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벅찬 감이 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공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에제키엘의 환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의미역시 아주 명확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 있는 중요한 상응들에 대한 고찰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물은 진리에 대한 상징이다. 따라서 성전 제단 옆으로 흐르는 물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 또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제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단의 오른쪽에서 흐르는 물에서 오른쪽이란 언제나 애착 혹은 사랑의 측면을 의미한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오른쪽은 동쪽을 향해 나 있는 성전 정면 또는 남쪽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남쪽이 영적 총명에 상응되기 때문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다음 에제키엘이 북쪽 문으로 나가 성전 바깥 길로 해서 동쪽 문 바깥으로 돌아가 보게 된다. 북쪽이란 영적으로 회미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동향으로 보이는 길로 해서 동문의 바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회미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제키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각자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어린이였을 때 교회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듣고 어린 마음에 그럴 것이라고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학교에 입학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에 몰두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잠깐이나마 인정하며 믿었던 주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되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흥미 없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희미함이며, “북문을 나가 바깥 길로”라는 구절의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동향으로 보이는 길로 해서 동문 근처로”, 즉 언젠가는 주님께 관한 지식을 다시 원하는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 이유는 동쪽이 언제나 주님께서 계신 곳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물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를 말하며, 이때의 물은 재면 잿수룩 우리에게 더 깊어짐을 실감하도록 해 준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십, 백, 천 그리고 만에 곱을 한 숫자들을 발견한다. 이 숫자들 모두는 어떤 상태의 완성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십대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때의 십은 어떤 단계를 통과했음 혹은 어떠한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태의 완성」이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 척(큐빗)이라는 측량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의 천척을 잴 때마다 말씀의 더 새롭고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물의 깊이에 대한 세 단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단계로서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발목까지 차는 물이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서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즉,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릎까지 차는 물이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천적인 의미를 아주 조금씩 알게 된다. 말씀 속의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느끼셨는가에 관한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말씀은 우리의 허리까지 찬 물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끝이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된다. 즉, 우리가 영원히 말씀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앞의 상응들을 모두 이해했다면, 우리는 강의 양쪽 언덕 위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창조 이야기」편을 상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무란 살아있는 영적인 행위 또는 선한 일을 순수하게 해나가는 것이 기초가 된 진정한 원리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원리 안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강이 주님으로부터만 흘러 내려오듯이, 모든 선한 일 역시 그분으로부터만 근원된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선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고기역시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선용을 위해 자연적인 지식을 찾는 애착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말씀의 글자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강가에 늘어선 어부가 되어 그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물에 걸려 끌어 올린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고 그 안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만 있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수렁이나 찼물이 남아 있는 갯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우리 마음속의 부분은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할 바램이 없다는 것이다.

나무란 원리를 그리고 나무의 잎이란 그 원리로부터 생산되는 생각들을 상징한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해진 이유를 각자 생각해보도록 하자.

기본 상응 공부

측량줄 = 교회의 상태를 재보는 능력

남쪽 = 영적 총명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는가?
- 14) 강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찢물로 13) 치료 14) 말씀

23

느부갓네살의 꿈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이 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록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록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록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록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록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यो, 가슴과 두 팔은 은ियो,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금께서는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쇠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냐 부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마는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웅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웅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웅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웅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쇠쇠와 웅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교리 요점

- * 하느님의 섭리는 역사를 조절한다.
- * 계시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 겸손함은 이타애의 필수 요건이다.

해설

우리는 시편서를 다루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시편서를 그들의 정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편서를 그에 알맞은 권위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권의 책을 그들의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로 분류했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러한 저술들을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신성한 영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예언자중의 한 명임을 언급하신다. 네 권의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이다. 이 네 권에 “대(major)”라는 어휘가 붙여진 이유는 그 책들이 부피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열두 권의 책들은 그 부피가 모두 작다.

다니엘은 과거 요시아 왕의 두 번째 아들로써 왕위에 오른 여호아킴의 통치 시절에 유다의 왕족이었다. 여호와킴은 그의 형 여호아하즈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이집트 왕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어 형 대신 보좌에 오른 인물이다.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면, 바빌론의 왕이 여호아킴의 통치 때에 예루살렘을 공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4장 7절을 보면, 그가 이집트의 세력을 꺾어 그 지역 일대를 그의 손아귀에 장악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다니엘서 제1장을 읽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1장에서 알게 되는 사항은 다니엘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갈대아어로 잘 알려진 그의 동료들인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젊은이들이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끌려온 첫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의 왕이 이들을 갈대아의 학식으로 양육시키려 했음도 알 수 있다. 다니엘서 제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이 과거 그들의 고향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종교 속에서 진정으로 머물기 위해 핍박히 용감했었다는 것과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이 바빌론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포로가 된 다른 백성들보다도 월등한 지혜를 갖도록 해주셨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니엘도 과거 요셉과 같이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기에 앞서 주목해 두어야 할 사항은 그 이야기 자체에서 주는 명확한 교훈들이다.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창세기 41:16) 자신의 지혜의 근원이

스스로가 아닌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자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들은 다니엘의 즉각적인 반응은 인도자이시며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과감한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했었음을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다니엘의 순종과 겸손함의 결과로 그에게 부와 권력을 주었고, 그를 들어 세움과 동시에 “너의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주며 하늘나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4절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간절함은 타인들 곧 재사들의 목숨을 건져 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그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든 즉각적인 생각은 그의 세 친구들을 돕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예언자 역할을 담당한 유일한 인물이다. 새교회의 진리는 부와 명예가 사람의 심정 속에 뿌리내리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에 해를 입히지 않으며 부와 명예가 주어진 자들은 단지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바빌론에서의 다니엘의 위치에 대한 증거는 같은 입장 곧 포로생활 중에 예언한 또 다른 예언자인 에제키엘서 14장 14절 또는 28장 3절 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은 오랜 후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고레스 왕 시대때까지 높은 지위를 누렸다. 정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명예는 하느님 앞에 겸손하며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여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바빌론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해준다고 해몽하고 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이런 식으로 그의 꿈을 이해하는 것은 그에게 타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 하에 조절되고 있다. 본문 21절에서 다니엘은 주님에 대해서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 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나안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는 다른 왕조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복의 역사였다. 우리가 성서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왕조들은 시리아를 시작으로 하여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리고 구약성서의 마무리 직전에 속하는 메대족의 다리우스와 페르샤왕 고레스 등이 있다.

영적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형상은 바빌론으로 불리는 교회의 하강을 묘사한다. 앞서 요시아왕 편에서 살펴 본 바대로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지배욕”을 표현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이 어떻게 교회와 관련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배욕이 시작부터 지배를 즐기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숨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커져 세력을 얻는 특징을 지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히즈키야 왕을 공부하면서 그가 바빌론에서 온 사절단을 친구로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궁궐내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 줌으로써 비극의 씨가 빨리 크도록 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건을 살펴보았다. 본문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왕국 내에서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궁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갈대아어)과 글을 가르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느님을 기꺼이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느부갓네살이 그가 꿈에 본 형상의 부분들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라고 불릴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는 머리가 지혜를 그리고 금이 주님을 사랑하여 선을 행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지배욕이 그의 심장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에는 주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데 열심이고 예배를 포함한 각종 교회 행사들에 적극적이며 선한 행위도 곧 잘 실천한다. 그러나 지배욕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그 지배욕을 소유한 자의 처음 징조는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주님에 관한 지식만은 계속 사랑한다. 이것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행동으로 선한 일을 지속해나기만 하면 선한 인격자이므로 세상이 칭찬해줘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상징하는 바다.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해오던 선행마저 중단하고, 자신이 성실한 교인이며 성경지식을 잘 아는 신앙인이어서 마치 선한 인격이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것이 쇠로된 정강이가 상징하는 바다. 이때부터 수많은 거짓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인 사상에 혼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행동 지침은 때로 진정한 원리 혹은 거짓 원리에 근거해서 이뤄지지만, 이 두 가지 원리는 결코 서로 합해질 수 없다. 이것이 쇠와 흙으로 된 발이 상징하는 바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빛, 즉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장한 선함이나 지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의 형상을 크게 보자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 즉 주님을 사랑함 안에 거했던 인류가 점차적으로 자아사랑으로 돌아서면서 그들의 선함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까지 상실하여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 구원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베드로가 주님께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주님이란 바로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운 돌이 상징하는 바다.

기본 상응 공부

철 = 자연적 진리

진흙 = 선함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악으로 전환된 자연적 선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 14) 상을 만든 네 금속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질문의 답

- 1) 바벨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9) 철과 진흙
- 10) 돌 11) 산같이 큰 바위 12) “하느님들의 하느님” 13) 온 지방의 통치자
- 14) 금 - 주님을 사랑, 은 - 믿음, 동 - 자연적인 선험, 철 - 자연적인 진리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5.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빗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켄데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굽은 배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빠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야훼의 말씀이시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은 우리가 행하는 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말씀의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속의 악들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것이다.
- *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 * 굶주림이란 선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해설

예언자들이 곧 주님을 대변한 사람들임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과 그들이 보고 기록한 모든 환상들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들이 깊숙이 감춰져 있음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은 옛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해졌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전시대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으로, 예언서들 안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 예언자들 역시 그들이 본 환상이나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에 대해서 단지 그것들의 글자적인 의미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들과 환상들이 주님께 의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었고 주어진 말씀과 환상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연구 없이는 예언서의 내적 의미를 아주 조금만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예언서들 안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나 필요성에 응용되거나 우리 행동의 직접적인 지침으로 응용될 수 있는 명료한 사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스웨덴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해주셨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씀의 속뜻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를 갖추 더 많은 내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도록 해주신다.

본문은 아모스서이다. 성경의 차례에 의하면, 아모스서는 소 예언서들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책이다. 아모스는 유다왕국 히즈키야왕 보다 삼대 선대인 우찌야 왕의 시대에 살면서 예언했다

(1장 1절 참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도 우찌야 왕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역시 비슷한 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요엘과 요나도 같은 시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아모스에게는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니었고 ‘예언자의 학교’ 혹은 ‘예언자 수련소’에서 교육된 적도 없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대략 6마일 떨어진 드고아라는 시골마을에서 목부 혹은 목자로서 생활하다가 주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돔인, 암몬인 그리고 모압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메시지와 환상을 주님께에서 받았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들이 빠져 있는 악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국가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예언했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종국에 가서는 회생된다는 희망과 그에 따른 행복을 약속해주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희망의 약속은 아모스서의 마지막장인 9장 11-15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첫 절에서 묘사된 환상으로 예시되어 있기도 하다. 스웨덴본은 첫 절의 여름(익은)과일 한 바구니에 대한 환상은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는 것을 의미하고 2절과 3절에서는 구 교회의 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바구니란 빵이나 과일을 담은 용기인데, 이는 우리의 의지 부분을 상징한다. 우리는 의지 부분에 우리가 이루어낸 선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일은 선한 일을 상징한다. 여름이란 우리의 심정이 선행(자비)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훈훈해진 때를 표현한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어진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종교를 잊어버렸는가와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 되도록 주님께에서 계속해서 허용하실 수 없었던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제 4-6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과 각종 규정들을 계속해서 준수하긴 했으나 그것이 형식적이었을 뿐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탐욕이나 남을 억압하는 지배욕에 허용해 버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이 주님께에 대한 예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행동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옮겨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선이 없게 된다. 한 마디로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아닌 설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과일이 없는 바구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1절은 글자 그대로에 영적의미가 드러나 있는 구절들 중 하나다. 즉, 주님께에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자 진심으로 원하는 이들과 이해한 것을 실천하고자 진실로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글자 안에 감춰져 있는 내적인 의미가 일부라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속뜻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만 만족될 수 있음을 명백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청종은 곧 순종을 표현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야, 내 말 듣고 있지?”라고 물을 때,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아마 “얘야, 내 말 대로 하렴” 일 것이다. 영적 기근과 목마름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워 그것에 순종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산상설교에는 팔복 중의 하나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본문 11절을 기억하면서 위의 구절을 고려해보면, 말씀 속에서의 굶주림이나 목마름 또는 양식이나 마시는 것 등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닌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고대교회인들은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상응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대부분을 상응의 언어로 말하고 기록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말씀 역시 이러한 상응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까지 전해지는 관용어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응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알아”, “그는 이상이 높아”, “그 사람의 마음은 훈훈해” 또는 “그 사람은 얇에 목말라 있어” 등의 표현을 흔히 쓴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상응의 언어를 무의식중에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응의 언어는 느낌의 전달이나 사상적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간결하지만 깊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기본 상응 공부

바구니 =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부분

여름 = 선행(이타애)의 상태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제 11절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가?
- 14) 복음서의 팔복 중 몇 번째가 위의 11절과 같은가?
- 15)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훔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13) 말씀을 듣지 못함 14) 4번째
- 15) 심정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듣기 위해 지성을 열면 된다.

25

강림에 대한 예언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꾼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움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것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다.
- *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만을 말했다.
- * 자신의 지혜를 신뢰함은 신앙과는 정반대이다.
- * 선한 자는 언제나 구원될 것이다.

해설

본문은 구약 성서에 대한 본 공과의 마지막 부분이다. 구약 성서에 있는 마지막 세권의 책들은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 예언된 것들이다. 말라기 시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는 모세를 통해 규정된 의식에 따라 거행되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대부분의 마음 상태는 이전과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실로 주님을 섬겨보겠다는 간절한 바램이 없었고 오로지 과거 그들이 가졌던 부귀와 나라의 권세가

재건되고자 하는 희망에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지 않고 그들을 위한 위대한 국가도 건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조차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여러 나라에 수차례 정복되어 결국에 타국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그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주님께 바침으로 인해 하느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시작했다 (말라기 1:7-8, 3:8). 그리고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라고 투덜거렸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 아내들을 멀리하며 타국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그들이 주님께 의해 마지막으로 경고된 때를 위해 그들의 악이 꼬집어내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며 번영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그 악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되어졌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말라기 이후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세월을 남의 지배하에 억눌려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말라기 시절의 악한 자들 사이에는 선한 백성들도 속해 있었다. 말라기서의 주요한 말씀은 이러한 선한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언의 목적은 선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400여 년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은 선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언급되는 시므온이다. 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6-18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들은 주님의 값진 보석 또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되고 있다. 스웨덴북의 저서에는 값진 보석들이란 신성한 사랑에서 투영되는 진리들을 표현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천사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선과 그들 안에 있는 지혜가 설사 그들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모든 선과 지혜가 그들을 통해 행하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임을 늘 알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전달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세상의 천사들이 된다. 이는 천사란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 역시 히브리어로 “나의 전달자”임을 기억해 두자.

본문에서는 두 명의 특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 한 특사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언약의 특사(사자)”라고 불린다. 「성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언약 또는 동의함을 뜻한다. 구약성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언약이 이행되어 감을 기술한 것, 즉 만일 사람들이 시나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들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번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이행이다. 성경에서 누차 살펴 본 바대로 유대인들의 나라는 거둬하여 이 언약을 깨트렸고 급기야 그것을 모독하기까지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임을 이미 예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 전체를 망라하여 주님께서 직접 언젠가 세상에 오셔서 남아 있는 선한 이들과 새 언약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거둬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의 예언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사악한 자들에게 참혹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제 3장 20절(개역 4:1)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개인의 측면보다 인간 역사의 측면에서 성취된 느낌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내용이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도 응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한 이들에게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결과는 3장 19절(개역 4:2)에서 기술되고 있다. 창조 이야기는 4일째 되는 날 태양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의 출현이란 우리의 심정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발달되는 때를 묘사한다. 영문성경의 3장 20절에는 “But to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라고 기록되어 있다. 날개(혹은 개역 성경에서의 광선)란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려주는 힘, 즉 내면 또는 영적인 생각을 상징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인간에게 가져오신 것으로서 선한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하도록 하여 그들이 악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리하여 개역 성경에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라고 번역된 것이며, 공동번역에서는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라고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식별은 빛(광선)이 비취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영혼의 병은 우리속의 악이며, 그분이 오시면 선한 자의 병은 고쳐지게 된다. 그러나 선한 이들 역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선의지를 가진 이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행해왔던 많은 악행들을 느끼고 실감하게 되면, 자포자기해버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범하게 되어 스스로에게 아주 큰 해를 입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과오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며 그것을 하나씩 고쳐 나가 그들 심정속의 깊은 악들까지 완전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온화하며 슬기로운 방법이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선의지를 보존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루신 방법이기도 하다.

3장 20절에서는(개역 4:2)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라고 전하고 있다. 소 또는 송아지란 삶의 외면에 있게 되는 선들을 상징한다. 그런 다음 21절에서는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라고 말해진다. 이 구절은 선한 이들이 그들 스스로 악들을 이겨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모세의 법을 되새기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순서는 진실로 선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겪어야 하는 재구성의 단계이다. 즉, 처음에 계명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배워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자신 속의 이기적인 욕구와 싸워 이겨냄을 묘사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바로 재구성의 이모저모에 대한 표현임을 배웠다.

본문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여서 선한 사람들은 그들이 소속된 교회로부터 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과 예언자 엘리야가 보내져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준비될 것임이 약속되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와 성취된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부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태양 = 주님, 신성한 사랑, 주님을 사랑함

날개 = 영적 진리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 11) 주님의 오심은 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했는가?
- 12)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예언자가 보내지지 않았는가?
- 13) 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는가?

질문의 답

- 1) 12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3) 말라기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종함 6) 주님의 오심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10) 엘리야
- 11)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 12)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
- 13) 주님의 진리가 갑자기 들어닥친 결과로 자아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이 성탄절 공부에서 다뤄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게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성직자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야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야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일러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성직자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떴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다.
- * 신약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꾸준히 인용되어 신약과 구약이 함께 묶어져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 관한 조그만 지식까지도 흠모한다.
- * 우리속의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해설

마지막 예언자가 보내진 후부터 주님의 탄생까지는 약 4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그 당시의 말씀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어졌었지만, 이를 바르게 전해야 할 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인간이 만든 법과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덮어 버려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각종 축제와 의식행사를 치르는 것에 만족해하며, 의식들에 참석하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헌물이나 요구사항만을 준행하면 주님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일부 현대의 신앙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정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각종 헌납을 준행하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진실로 선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소수이지만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것을 구약 성서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다. 말라기의 예언은 세레자 요한의 출생과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인 데,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사는 본문 17절에서 엘리야가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영어 성경(KJV)에서는 이 절의 엘리야가 엘리야스(Elias)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엘리야(Elijah)로 표기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서 그렇게 표기되었을 뿐 두 이름들은 결국 같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3-14절과 17장 10-13절을 참조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즈가리야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다. 구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기 위해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다(다니엘서 8:16, 9:21). 가브리엘(Gabriel)이란 히브리어로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를 의미한다. 스웨덴본은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배워 가르쳐 주기를 매우 사랑하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인 천국의 사회(집단)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다니엘과 즈가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실제로 천국에 있는 한 사회의 전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천국의 사회가 지상에 나타나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로 나타난 것이다. 즈가리야가 일시적으로 병어리가 된 사실은 그가 과거에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음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천사가 말한 위대한 약속을 그가 믿고 말할 수 있기에 그의 이해성이 극히 무능력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어에도 상응의 언어로 표현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빗대어 “저 친구는 병어리야”라고 표현할 때에 “병어리”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열심히 말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요한이 태어나자 즈가리야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즈가리야가 요한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천사의 말을 진실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혀가 풀리면서 그가 한 첫 마디의 말이 바로 찬미였다. 즈가리야의 노래는 교회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마리아도 즈가리야와 엘리사벳과 더불어 경건하고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왔던 무리에 속했다. 마리아에게도 그녀가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경이로운 소식을 전하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졌다. 구약성서는 한마디로 주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으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2-23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의 선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상황을 의식하면서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위로로서 그 예언에 집착했다. 이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2장 36-38절에 있는 여 예언자 안나의 말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그녀의 역할에 대한 신성한 확증을 받았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져야만 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곧 자신

속의 악을 의식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들만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였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 와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받는다.’하는 표현은 곧 구원됨을 의미하지만, 구원에는 회개가 반드시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속의 악한 생각과 느낌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우리의 의지로부터 떼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빈방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꼭 한번쯤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구절이 비록 짧지만 인류를 위해서, 즉 우리 모두를 망라하여 엄청난 말씀임을 주지해야 한다. 간혹 신앙인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구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세례가 기독교인의 표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세례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보기들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고 있다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고 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껍데기(형식)에 속하며, 아는 것을 삶에 옮기는 것이 바로 껍데기의 속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쪽으로만 향하게 하려는 거짓들을 치워내고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세상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요한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기심을 들추어 꺼내 보여주며 그것에 대항하여 싸워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었다.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권고에 순종하여 회개한 이들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준비를 갖추고 그분을 따를 준비를 완료한 사람들이다. 말라기서 3장에서 주님의 오심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물체는 우리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려 댈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우리 안에 가득한 악과 거짓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를 강행한 이들에게는 요르단 강가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른다. 물세례란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얻어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기본 상응 공부

병어리 = 드러내 놓고 주님을 믿지 못함

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삶을 정화 함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야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야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 17) 병어리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는가?
 19) 세례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가리야 10) 아들을 갖는다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17) 영적인 무지 18) 겸손과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
 19)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도

27

주님의 탄생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다.
- *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도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 * 주님께서 우리속의 유대 땅 곧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속의 갈릴래아 지역 곧 일상생활에서 성장하시며 우리속의 사마리아 지역 곧 생각을 자주 거치셔야 한다.

해설

구약 성서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거듭하여 예언되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예언에서 약속된 아기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다. 아기의 형태로 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였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언서들을 통해서 약속된 아기를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라고 불리며 지상에 있는 그들의 적들을 쓸어버릴 권능의 왕이요 그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울 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막상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는 낮고 천한 곳에서 아기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곧 삶의 안내자를 찾고 있던 단순하며 선량한 사람들과 예언들이 주는 외형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보았던 자들에게만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성탄절의 이야기에서 목자는 순진함을 흠모했던 사람들을 표현하며, 동방박사들은 올바른 삶을 위해 진리를 흠모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시각은 한밤중이었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며 어둠은 무지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어둠이 가장 깊은 한밤중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이 만든 전통들로 말씀을 가려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때에 그분께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 관한 진정한 앎을 갈망하는 이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의혹이나 의심의 가능성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때는 세상 중에 악의 권세가 너무 커져서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조차 더 이상 악에 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뒤바뀔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악이 그분께 들어와 공격할 수 있도록 인성을 입으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 날 가장 큰 선물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던 까닭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탄절 날 주고받는 선물에 감사할 때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주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혀진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속의 선한 애착들을 먹이시게 됨을 묘사하고 있다. 마구간에 있는 가축은 유용한 노동이나 용역을 위해 있는 우리의 애착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는 특권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남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기 위함이었다. 겸손한 자들만이 그분의 탄생을 인식했고, 오늘날역시 우리 주위에서 겸손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진실로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다

함은 우리속의 이해성과 마음이라는 방이 자아로 가득 차서 주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우리 안에 없음을 묘사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란 자아를 비워서 그 안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가축을 지켰다.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진리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함이나 선함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단순하고 선한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지식이 발견되거나 들려지게 되면 어두운 방에 불이 켜져서 빛이 한꺼번에 강하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오게 된다. 이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환영하며 더 배우려고 급히 달려간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늘 군대의 메시지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된 천국의 심정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두 사랑 곧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저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기어이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욱 배우려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기본 상응 공부

마구간 = 말씀에서 온 진리의 교리

목자 = 순진을 흠모하는 사람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 2000년 전 3) 베들레헴 4) 마리아
- 5) 요셉 6) 동방박사 7) 별을 보고... 8) 목자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28

나인성의 과부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기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뵈 생각할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 들였으나 30.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 *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표현한다.
- *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 * 진정한 선행(이타애)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해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간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 당대 사람들은 전적으로 물질주의적 이여서 가시적인 것만을 믿는 경향이 강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시적인 증거들을 요구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육의 눈이 보는 것 이상의 높은 것을 보게 해주는 시야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가진 육신이란 영혼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지 않아서 늘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며,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마음에서 오며, 마음이란 주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수행할 권능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이러한 권능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 연장되어야하거나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위해서와 타인을 위해 좋은 것으로 여겨지시면, 그분의 권능은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모두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분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우선 그분을 믿고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상응을 통해서 이해되는 더 깊은 교훈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다. 따라서 백인대장의 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안의 쓸모 있는 자질들이며, 그 종이

죽었다 함은 그 유용한 자질이 어떤 상황이 되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함을 의미한다. 백인대장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위해 그분께로 얼굴을 돌림을 의미한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에게는 만사가 가능하다.”이라는 말씀에 신념을 갖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적은 과부를 위해 베푸시는 것이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기 이해성과 애착을 상징한다. 이를 토대로 나인성의 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실 말씀에서 언급되는 과부는 여럿이 있다. 그중에서 본문의 과부는 우리속의 어떤 선한 바램을 상징하는데, 그 바램은 그것과 더불어 균형을 이뤄야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로 상징되는 바램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 다닐 때와 같이 하느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라고 말을 흔히 한다. 이러한 표현은 말하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이해성 안에 있었던 진리가 죽어 버리도록 세상적인 생각과 삶을 허용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현존과 권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재함으로서만 우리속의 진리들을 다시 살아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에 이어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구절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말씀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미 죽었던 자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나 호평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과거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열왕기상 17:8-24, 열왕기하 4:8-37).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분 곧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때를 맞으셨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확증을 받아가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요한이 말했던 모든 것이 진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아니다. 갈대는 물가에서 마구잡이로 자라는 식물이다. 따라서 갈대란 우리 속에 자연적인 수준에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글자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의 글자를

읽고 기억 속에 담아 두곤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논리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논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짜깁기하는 행위이다. 광야라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주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즐거움도 주지 않을 수 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사는 곳인 왕궁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극복해낸 후 천국에 이르렀을 때 발견하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선적으로 우리속의 악을 들추어내서 회개하도록 해주며, 그 안에 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케 하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세례자 요한과도 같다. 이리하여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직능을 완수할 때를 맞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28절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의 영혼이 이때에 이르면 세례자 요한은 죽고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영을 진실로 느끼기 시작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면서 한없이 성장하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과부 = 소유하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잃은 선한 바램

갈대 = 말씀의 가장 외적인 뜻

질문 정리

- 1)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야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2) 즈가리야와 엘리사벳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8) 회개하라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16) 예언자
-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알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해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니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성직자 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화하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주님께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 * 믿음은 남을 도울 능력을 준다.
- * 우리가 남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중 그분과 가장 가까운 열두 명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임명된 사도들은 훗날 세상으로 파견되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열둘이었듯이, 주님의 사도들도 열둘이었다. 그 이유는 열둘이라는 숫자가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숫자 열둘이란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노력할 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를 알고 계시듯이 장차 기독교회의 건설에 기여할 특별한 품성들을 열 두 사도들 안에서 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내리시며 특별한 경험을 갖도록 해 주셨다.

열 두 사도들이 겪은 경험들 중의 일부는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후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 속에서 실제화 되기도 했다. 본문은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보내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식량자루, 빵, 돈 그리고 여벌의 내의까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 머무를 곳과 음식을 얻으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그들이 똑똑하다거나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돌보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뤄짐을 명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도 이를 인식하고 배워야만 한다. 설령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올바름을 확신할지라도,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조언해 줄 때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요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상대방에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들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기적의 간략한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가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를 타인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하면 그분께서 그 적을 양을 곱하고 곱해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남게도 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제 본문의 나머지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들 역시 사도들을 준비시키시는 또 다른 사건들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에 관한 뚜렷한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인간적인 판단 속으로 되돌려지게 되며 옳고 그름에 관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스스로의 아집이나 세상에 의해 인도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그 모든 사상에 하느님이 없다”라고 우겨대는 현상이 우리에게 초래된다는 것이다 (10:4). 이로 인해 주님의 변모가 기록된 세 복음서의 사건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먼저 거론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제자들 앞에 계신 그들의 스승이며 그 스승이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예언은 주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부상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즉,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삶이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하듯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미약한 부분에서 점차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5-26절에서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세 사도들과 같이 변모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거나 온화하게 말씀하실 때만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견책해 주실 때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옛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말씀의 글자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자들인데, 이 셋은 각기 믿음과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을 표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분의 변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지각의 상태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림을 말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마태복음 서에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 복음서들 모두 그분의 옷이 희게 빛났다고 전하고 있다. 얼굴은 사람의 내면의 질(質)을 상징한다. 우리가 주님이 곧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서 명백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행동이 하느님의 참된 본성(本性)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것이며, 그분의 옷인 말씀의 글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명확하게 되어 이전에 말씀의 글자를 덮고 있던 가상적인 곤란함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말씀 속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이해성에 비취지게 된다.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시하여 예배하려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믿음을 간직한 채 새로운 것인 기독교적인 믿음을 단지 추가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이 제안을 했을 때 그가 가진 어두운 마음인 구름이 그를 덮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 사도들은 이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확신 했던 것이다. 물론 베드로는 이를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경험도 가졌지만,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이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다(사도행전 11:1-17 참조).

기본 상응 공부

열 둘 =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선행(charity, 이타애)
 요한 = 선행으로부터 이루어진 일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았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둘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이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회개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성직자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음에 들었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였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종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을 예배함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 * 믿음은 선한 일로 결과 되어져야 한다.
- * 각자 안에 든 선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해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님의 비유 중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속한다. 그리고 율법교사와 그의 질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도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큰 계명으로 답하고 계신다. 마태복음서에서의 교훈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누가복음서에서의 교훈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본문에서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비와 친절이 중요한 사항이지 학식이나 종족 혹은 계급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성직자나 레위 지파 인보다 자신들이 경멸해 왔던 사마리아 사람을 더 나은 이웃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웃이라 불린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신 바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종족 자체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 곧 속사람의 값어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인격 속에 든 선인 것이다.

주님의 비유속의 모든 사항들은 누구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응을 첨가시켜 공부하면 더욱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교회 또는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는 영적인 시아나 해결책을 상징한다. 이런 높은 상태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므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높은 상태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속의 선한 결심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곳인 삶의 일상이라는 낮은 평면 곧 예리고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리고로 가는 길가에 잠복하고 있는 강도란 우리 속에 든 악한 충동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지옥에서 올라 온 것들로서 강도처럼 우리 속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높은 생각과 선의지를 강탈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반쯤 죽여 놓는다.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성직자와 레위 지파 사람은 썩어진 교회를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성 속에 올바른 것에 관한 지식과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을 행해 보겠다는 따뜻한 애착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반쪽 밖에 안 되는 지식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선을 행해 보겠다는 단순한 바램은 우리를 도와주는 원조물자와 같은 것이다. 이런 바램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인으로 표현되는 선행에 대한 바램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사랑과 진리인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다음 짐승에 우리를 태운다. 여기서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속의 단순한 선함을 기초로 하여 있게 되는 추론이며, 이 추론은 반쯤 죽은 우리를 회복 가능한 곳인 여관으로 실어다 주게 된다. 우리의 강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천국이며,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선을 행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이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웃이 선함이라고 지적하신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우리가 이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함이란 그들 속에 있는 악까지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점검하면서 그들 속에도 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선이 발달되고 증가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유사한 선함을 지닌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이 붙어살게 된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선함을 가져가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읽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신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둘 다 착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마르타의 생각은 주님의 육체적인 필요성을 섬기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타가 주님께 보다 가시적이고 행위적인 선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마리아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마리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을 배울 기회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해져 결국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관하여 배우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선하다고 속으로 칭찬하면서 자신과 같은 행동선상에 있지 않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행동만으로 이뤄지던 우리의 선함은 내적인 측면에서 전혀 선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 든 선이 도와줘야 할 우리의 이웃임과 우리의 안내와 힘을 주님께에서 찾지 않고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항상 유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함께 더욱 잘 섬겨가게 되어 지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예루살렘 = 영적인 상태

예리고 = 바깥쪽 생각과 활동 평면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파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리셔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성직자,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려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건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 *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꾸준히 인용하셨다.
- *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오게 된다.
- *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해설

앞서 우리는 말라기서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사악한 자들에게 풀무 불에 던져진 검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의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겉모양새는 존경받을 만하여 모든 이들에게 아주 경건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도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구약 성서를 공부한 학식 있는 자들로 모세의 법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은 율법을 아주 빈틈없이 준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 두 무리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이러한 지배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율법에 이런저런 자신들의 규정을 덧붙여 놓기도 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로 하면 자신들을 찾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후 주님께서 등장하신 뒤 사람들이 요한과 주님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사람들을 묶어 놓았던 것이 허물어져 감을 느끼며 분노하여 자연히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신봉하고자 하는 것 곧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 더욱 컸다.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아집을 쫓는 모습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본문 33절과 34절에 담겨있다. 빛은 진리에 대한 제일가는 상징물이다. 빛을 발하는 초나 등잔은 진리를 발생하게 하는 교리를 상징한다. 시편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라는 말씀을 상기해보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일곱 등경 사이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기억해 보자.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교회란 교인들이 무지라는 어둠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환한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예상되는 교회를 의미한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이 교회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두었다. 게다가 그들의 자아 사랑은 주님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와 계실 때조차도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걸어 두었다.

눈은 이해와 상응한다. 이해성을 가진 우리속의 이기적인 생각이 물러갔을 때의 눈은 온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맑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이 우리의 이해성을 지배하게 되면 진리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 때 내 눈에 뭔가가 씩었나봐.”라는 말을 흔히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의 상황을 예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즉, ‘마치 눈에 무언가가 씩은 것처럼’ 이라는 표현은 곧 ‘마치 내 마음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신의 고집대로 추진하고자 안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즉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주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왔다고 떠들어댔던 것이다(15절).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길을 얼마나 멀리까지 고집할 수 있는가와 기적을 목격함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만들지 못함을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인격에 대해서 위선자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묘사하신다(44절 참조). 이와 같은 책망은 마태복음 23장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리는 두 복음서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십일조를 바치는 데는 신경을 썼으나 정작 그것이 의미하는 바인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여긴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뒹아 놓았으나 사악함이 가득 찬 속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잔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시는 음식을 담는 용기로서 선함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구절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심정과 지성을 이기적인 바램과 추론들로 가득 채워 버려서 진리나 선함이 있을 장소를 남겨두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제 2절에서 언급되는 주기도문의 단어의 배열이 그 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영어 성경의 “as in heaven, so in earth,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번역된 것은 마태복음의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땅에서도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표현보다는 정확한 그리스 원문의 번역이다. 스웨덴본은 우리 영혼의 하늘인 우리의 이해성과 마음의 바램이 주님의 의지를 행하는 것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역시 신실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본문의 일반적인 주제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집주인의 비유와 9절과 10절의 약속은 주님께서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말씀임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29절에서 언급되는 “예언자 요나의 기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배운 바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삼일 만에 있게 될 그분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는 삼일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바닷가에 토해내져 살아난 요나를 기억한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에 관한 예언이 바로 “요나의 기적”임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31절의 “남쪽 나라의 여왕”이란 세바의 여왕을 말하는데, 그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 1-1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초, 등잔 = 교리

등경 = 교회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제 2반 참조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 4) 성경 5) 악마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7) 요나의 기적
- 8) 요나, 세바 여왕 9) 등경 위에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 11) 깨끗함, 순수함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13) 위선 14) 선한 체 함
-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큰 잔치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거룻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교리 요점

* 주님께서서는 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

- *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것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된다.
- *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신실하지 않은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
- * 변명은 우리가 가진 애착의 진정한 본성을 노출 시켜준다.

해설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삶에 필수 요소이다.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은 육체의 지탱과 재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소모된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만 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광물들을 두셨다. 우리는 동식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 게다가 우리는 여럿이 앉아 먹고 마시기를 선호한다. 세상에서 친구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음식을 나누는 장소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일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음식을 나누도록 한 바리사이파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하셨다. 당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의 적이였다. 그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척 하거나 주님의 친구인 척 한 까닭은 단지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찾아내고자 늘 기회를 노렸다. 주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분에게는 어떤 적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심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속셈에 경종을 울려주셨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받지 못할 때 쓰시는 방법인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이 언젠가 그 비유를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몸은 우리의 영혼이 소유한 데도나 능력을 행위로 표현해 줌으로서 영혼을 섬길 따름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행하는 것들로부터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육체가 꾸준한 양분의 공급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꾸준한 양분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영혼의 양분인 영적인 양식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함과 진리이며, 이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본문의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초대받은 손님들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제공해 주시는 선함과 진리를 상징한다. 본문의 비유인 큰 잔치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해 주시는 상징적인 잔치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선함은 우리의 마음으로 자유로이 흘러들어 오게 된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만일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면 나야 즉시 수락하지.”라며 확신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초대장이 오게 되면, 우리는 참석하지 못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기도 한다. 본문의 비유에 있는 세 가지 변명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수락하는지와 우리 마음에 일게 되는 옳지 못한 예들의 이모저모를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발을 샅으니 거기 가 봐야겠소.”하고 핑계를 댔다. 발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 따라서 발을 산 자란 자신의 사상에 몰두되어 말씀을 읽은 겨를이나 말씀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 가는 길이요.” 라고 말했다. 일을 부리는 황소들이란 쓸모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마르타와 같이 (10장 38-42)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경향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못 갈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하지 못함을 미안하다고 느끼는 자들이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라고 대꾸했다. 자신의 사상이나 활동에 “결혼한” 모습은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겠다고 확고히 다짐하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님의 친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주님의 진리조차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가 충분히 선하며 선택될 수 있는 지식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의 초대를 기쁘게 승낙한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장애인들이란 죄에 빠져 버린 이들로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당하고 다쳐버린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재생시키고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원한다. 그리고 절름발이

들이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삶을 엮어 가기에는 자신에게 약점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소경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되 진정으로 열심히 읽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읽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각자 나름대로 소원하는 사람들이며, 그 결과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강건함을 얻게 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불구자요 절름발이며 소경이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됨을 기쁘게 승낙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으로 공부를 마무리 지어보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황소 = 유용한 일에 대한 애착

결혼 = 심정과 지성이 하나 됨, 또는 선과 진리의 결합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 13) 겸손이 있는 마음

33

방탕한 아들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네!”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만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 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쫓아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말씀속의 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다.
- * 진리를 잃게 될 때 믿음도 잃게 된다.
- *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용서역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

해설

본문의 세 가지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회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잘못을 행한 이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며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비유들은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잃어버린 양이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순진한 신뢰심 같은 것으로, 우리속의 선한 애착 들을 말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애착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속의 모든 양떼들 곧 선한 모든 애착 들은 목자 없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다. 순진한 신뢰심은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 그 자체와도 중요성을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진한 신뢰심의 중요성은 주님께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복음 18:3)”라고 하신 말씀의 구절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은전 열 닢이란 우리가 각자의 삶을 계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십계명을 의미한다. 우리가 십계명 중 어느 하나를 잃거나 열 개의 계명 중 어느 하나를 덮어두거나 슬그머니 흘려버리면, 그렇게 잃어버린 계명 곧 지켜지지 않은 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일 사사건건 우리 인격의 흔들림을 느끼도록 해준다. 그 이유는 인격이라는 집을 떠받친 열 개의 기둥 중 하나를 빼낸 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끌어 내야” 할 집이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상이라는 먼지가 쌓인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 등불이란 은전 한 닢을 우리 속에서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빛을 가진 말씀 곧 우리가 소지한 성경책이다. 이는 시편 119편 105절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라는 구절을 상기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방탕한 아들이란 자신의 행동 측면이 주님에 의하여 지휘 감독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상속물” 곧 자기의 모든 재능과 부여된 기회를 챙겨서 “먼 나라”, 즉 주님으로부터 먼 삶의 상태로 향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들은 방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실체들을 낭비해 버리게 된다. 이런 삶은 “폐지를 치는” 것, 통상적으로 일컫는 감각적인 악들로 직행하게 된다. 이 감각적인 악들은 동물이 영위하는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인간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치는 것(insanity)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주님을 알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본성을 소유함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방탕한 아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들어 올려 마침내 잘못된 삶을 정리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회개를 하면서 그분께로 발길을 돌린다면, 우리는 길 중도까지 마중 나와 반겨주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든 독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바리사이파인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큰아들만이 회개한 죄인의 귀가를 반기지 않았다.

제 10절은 종종 사람들을 혼동시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신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그 구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 10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의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가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말로 명확히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이 완악해지고 독선적으로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잃은 은전 = 잃은 진리

우리의 상속 =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

질문 정리

- 1) 큰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해졌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3)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 23) 잃은 애착, 잃은 생각

34

부정한 청지기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속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뭇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붙잡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신다.
- *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말씀속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된다.
- * 주님께의 충실함은 저절로 이웃에의 충실함으로 표현된다.
- * 우리 마음속의 선행(이타애)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

해설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주님의 말씀 곧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재물(mammon)이란 부유함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비유에서 주인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즉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선을 낭비한 부정한 청지기됨을 실감하면서 그것을 읽게 되면,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더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단지 그분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지만, 때로 자아를 섬기는데 이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빛지는데 그분께 빛진 것을 아무리 갚아나가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주님께 빛진 것을 다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인정하며 슬기롭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빛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오십 말과 팔십 섬이란 우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이 원상복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보다 나은 행동을 할 것임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 부자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나 자만심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부함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거지 라자로란 진정한 지식이 조금밖에 없고 행위적인 삶마저 추하게 이끌어 왔으나 마음만은 열려있어 자신들이 받게 되는 어떤 작은 것도 선용하는 이들을 말한다. 개는 말씀 속에서 나쁜 의미의 상응을 갖는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개들이 자연적인 바램 곧 이기적인 바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의 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가 갖게 되는 친절함이나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향은 우리가 무지하여 범하게 되는 악들을 어느 정도 만회시킬 수 있다.

우리의 속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살게 되는 저 세계에서 부자라는 자만심과 세상욕은 그것을

답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알맞은 장소인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 즉 진리가 모자라서 언제나 진리를 바라던 마음과 겸손함은 그의 행복을 천국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큰 구렁텅이란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구렁텅이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각자 즐겨 보려고 열심히 배운 각자의 삶의 본질에 따라 있게 되는 영혼의 차이를 의미한다.

선한 삶에 필수요소는 겸손과 더불어 주님을 기꺼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저 세상에 가서는 천국적인 것을 즐기겠다는 양다리식의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눈에 어떤 기적이나 천국에 대한 환상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 상용 공부

밀 = 선함

백 = 충분한 양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빌어먹는 일
- 6) 작업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종려 주일 (3)

머리말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과 자료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 하여, 모든 밤이 이 사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 주님을 왕으로 받기 위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면 즉시 거행되는 작업이 성전을 깨끗이 함임에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열린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렀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퍼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하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하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어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몫쓸 종아,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어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야?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요?”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펴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교리 요약

- * 왕으로서의 주님이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자연적 이성을 완전히 다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 * 말씀속의 아주 짧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원해야 한다. 겸손은 선행(이타애)의 기초이다.

해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첫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문의 이전 내용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갈릴리로부터 내려가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과 그분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간에 있는 명백한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을 환영하는 제자들 틈에 끼어서 그분께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모습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미워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본문은 주님과 사도들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해당된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죽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면 그분을 설득하려고 했다. 물론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지도 못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세상에서 해내야 할 일의 한 부분으로서 기꺼이 그 죽음에 다가 가셨다.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여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하는 여정과 반대됨을 주목하도록 하자. 주님께서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인 바, 이것은 바깥쪽에서 그분의 가장 깊은 가르침 곧 가장 높은 승리의 장소로 올라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문을 여는 자캐오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자캐오가 영적으로 강도만난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캐오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보고 주님을 뵈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캐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성경 상의 돌무화과나무란 무화과나무들 중에서 가장 하급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란 선한 일을 상징한다. 자캐오가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오른 모습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뵈고자 할 때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더불어 우리의 거처를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시게 된다.

금화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쓸모 있도록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즉,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기” 때문이다.

종려주일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나 관관들의 관습처럼 주님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 가셨다. 나귀란 우리의 “자연적 이성” 또는 세상적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을 상징한다. 나귀는 타박타박 걷는 짐승이어서 꽤 듬직하지만, 주인의 지시대로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고집이 센 동물이다. 스웨덴붉은 이러한 나귀의 특성과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의 특성과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 이는 나귀라는 짐승의 속성이 지닌 힘인 자연적 이성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더 높은 원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하셨음을 의미한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옷을 던졌다. 겹옷이란 우리의 애착 곧 진리가 가리키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옷 입히고 있는 생각을 상징한다. 주님의 겹옷은 언제나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나, 우리의 겹옷은 언제나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군중들은 주님을 환영했는데, 바리사이파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주님께서서는 그들로 하여금 군중들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반대하는 이들을 미워하시는 대신 한탄하시며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후 그 예언은 약 40년 후에 성취되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고대 유대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을 가졌으나, 정작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표현해 주어야 할 그들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어서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회가 새로 생겨나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당시 교회의 상태는 성전 뜰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치들의 모습에 함축되어 있다.

성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워내려고 하지 않는지 혹은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제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분 앞에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던졌듯이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을 복종시키는 모습, 즉 주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에 환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진정한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다는 것은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아를 잊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십자가는 우리의 이기심을 정복하는 승리의 상징임도 유념해야 한다. 이 승리는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누구나 쟁취 가능하다.

기본 상응 공부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나귀 = 자연적 이성(추론)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였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 2) 예루살렘
-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 5) 세관원
- 6) 키가 작아서
-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 8) “어서 내려오너라...”
-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 11) 불평했다
- 12) 비유
- 13) 금화
- 14) 열 중에게, 금화 한 개씩을...
-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 18) 그렇지 않다
- 19) 나귀위에 겹옷을 깔았다
-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 24) 예루살렘의 파멸
-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 26) 기도하는 집

36

부활절(3)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시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 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 * “돌이 굴러졌음”이란 말씀의 글자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위해서 주님께 의해 영감 된 글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이해하려는데 있게 된다.
- * 신성화하신 그리스도를 뵈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지는 것이다.

해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당신께서 죽음에 놓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설득하려들자 그들을 꾸짖으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주간 첫날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황폐해지고야 말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성전을 장터로 변하게 한 비둘기 장수와 환전상을 몰아내심으로써 성전을 깨끗케 하셨다. 그 후 이틀 동안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밤에는 그분의 친구인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가 있는 베다니아에서 묵으셨다. 그분은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이층 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드시며 이때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 후 주님께서는 올리브 산의 계체마니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셨다. 그날 밤 그분은 대성직자 앞으로 끌려가 심문 받은 후 헤로데에게 끌려가셨으며,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심문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 그분의 시신은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태아 사람인 요셉이 소유했던 새 무덤에 모셔졌다. 이 후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봉인되어졌고, 경비병들이 무덤의 입구에서 보초를 섰다. 그분의 시신은 히브리의 전통인 안식일 동안 무덤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성직자들은 그분을 죽음에 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성한 길을 따르는 것과 신성한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신성한 삶을 사는 것을 모두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사상 그리고 세상의 삶만을 원했을 뿐이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이기적인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해석이나 각종 규정들을 말씀 위에 덮어놓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바를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큰 돌로 상징된다.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그리고 여인은 애착들을 상징한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녀들이 주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가져온 향료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분에 대한 내적인 이해를 상징한다. 그녀들이 그분께서 그녀들을 떠났다고 생각되는 때까지도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그녀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던 것이다. 반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까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자들과 여인들 간의 상이점은 선함의 사랑에 기초된 믿음과 단순히 마음만으로 본 것에 기초한

믿음의 상이점과 같은 것이다. 안식일이 끝나자 무덤이 열리고 인간 삶의 새 기원이 시작되었다. 주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까지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각 개인의 죽음과도 같지만, 그것은 연극에서 제 일 막이 끝나고 제 이 막의 시작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유대 교회의 끝과 기독교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서지고 낙담만 남은 사도들은 부활로 인해 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변화되었고, 심지어 복음의 무적 용사가 된 사도들도 생겨나서 그들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다. 부활은 주님이 수행하신 모든 기적들, 즉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확신하도록 하는 인증인 것이다. 그 이유는 부활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거치심으로써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분만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즉 육체의 죽음은 삶의 단계에서 보다 위쪽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되돌아와 내게 말해준 적이 없거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돌아 오셔서 말씀해주셨어.”라고 즉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대답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의 주님의 생애가 기독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기초인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무덤을 막은 돌 =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

아침 = 새로운 상태의 시작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는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판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월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यो.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성직자 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헌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교리 요점

- *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열어 보이도록 한다.
- *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 *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만이 천국적인 교리를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 더욱이 베드로는 스스로 무덤에 달려가 확인해 본 다음에도 그분의 부활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죽으면 만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여 계속 슬퍼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걷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을 주님께 말했다를 때,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대신 예언자들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낙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다.

이후 주님께서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성경 부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 언급된 사항들 중 일부를 설명해 주셨다. 그 설명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내적 의미임을 23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한 그들의 표현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성서를 깨닫게 하심을 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이 주님으로부터 영감 된 말씀의 일부임을 살펴보았는데, 본문 44절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사실 고대 유대인들의 정경은 시편을 말씀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초대 기독교회 인들은 본문 또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으로부터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 내적 의미를 가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이들이 수세기 동안 성경의 내적 의미를 발견하거나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들이 여전히 말씀의 내적 의미에 대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원리들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요한복음 16:12). 말씀의 내적 의미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열어 주실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의 이해성이 발달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말씀을 여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림의 성취는 18세기 중반에 이마누엘 스웨덴보이 주님에 의해 선택되고 준비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어느 누구라도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받아쓰도록 하셔서 이뤄진 것이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부활 후 그분의 출현에 관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만을 읽는다면 주님의 승천이 부활 후 며칠 안 되어 거행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모든 기사들 속에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시간의 경과가 종종 명시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곳저곳에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4절에서 그의 복음서에서 보다 더 상세한 승천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승천이 있었던 장소가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동네인 베다니아였음을 배우게 된다.

이밖에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시고 만져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등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디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을 때 육체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유용한 감각적 능력까지도 남기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가지는 몸은 육신이 아닌 영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입으신 “가장 외적인 것들”까지도 신성으로 만드셔서 이제 이 세상과 더불어 언제나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의 몸이 마리아를 통해 받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마리아로부터 온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서 신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께서 육신으로 일어나셨더라면,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분을 알아보았을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고 나타나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혹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하는 주님께 대한 최선의 길은 요한계시록 1장 12-16절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바대로 이다. 이 구절은 한 인격체로서 그분을 생각하게 해줌과 더불어 여느 유한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도 명백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본문을 다루면서 상응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교훈만 생각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두 제자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보도록 해 주셨다. **빵을 떼심이란 선을 수단으로 하여** 결합함을 상징한다. 사도들이 그분께 드린 음식은 구운 생선과 벌집이었는데, 구운 생선이란 사랑을 통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을 그리고 벌집이란 자연적인 기쁨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이 구절에서의 구운 생선과 벌집이란 말씀의 글자와 그 글자가 주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말씀의 글자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즐거움만이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기본 상응 공부

빵을 떼심 = 선을 수단으로 결합함

구원 생선 = 사랑에 의해 유용하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다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의 답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2) 여인들 3) 헛소리로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5) 예수님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7) 본문 25절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14) 생선과 꿀 15) 성경의
내적 의미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하늘로 올라가심 19) 베다니아 20) 사랑을 나눔 21) 천국의 교리 22) 신성화 되신 신성한
본체

38

네 기수들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짙은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교리 요약

- * 말씀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 * 예언적 말씀의 결과들은 사람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 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인에게 발달하게 되는 내적인 심정 상태를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환상들로 가득한 책이다. 이 환상을 받아 쓴 사도 요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노령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물론 요한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도들 사이에 속해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시는 틈에도 속해 있었다. 파트모스 섬에서 있게 된 그의 환상들은 과거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으로 밝혀 주셨듯이 말씀속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악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주는가와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여 자신속의 악과 싸우고 또 다른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거나 자신속의 악을 계속 옹호할 수 있도록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있어진 것이다.

첫째로 요한은 일곱 등경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께 관한 경이로운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담당해 왔던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편지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그는 심판의 큰 옥좌와 스물 네 명의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과 일곱 인이 찍혀 봉해진 두루마리, 즉 어린 양만이 펼 수 있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봉해진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는 환상으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어진 책이다. 우리가 성경 속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계와 저 세계 모두에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더욱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항상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진리는 우리속의 이기심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환히 보게 해주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악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봉인이 떼어짐이란 우리 안에서 더 큰 악들이 밝히 드러나지는 모습을 상징한다. 첫째로부터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기수를 태운 말들을 보았다. 말쌈 속에서 말이란 총명 또는 우리의 보다 높은 추론력을 상징한다. 우리가 가진 추론력은 우리 속에서 가장 유용한 자질 중 하나이다. 좋은 측면에서의 추론력은 상당히 유용하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정반대의 측면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악에 속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위해 추론력을 오용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을 때조차 종종 저지르게 된다. 각기 다른 말들이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사용함을 상징하고 있다.

흰말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로 살고자 하는 바램으로 인해 성경속의 진리를 이해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러한 바램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신다. 그래서 흰말의 기수는 싸우기 위해 활이란 무기를 가졌고, 시험에 분명히 승리한다는 월계관을 쓰고 있던 것이다. 흰말의 기수는 정복에 정복을 더해 갔다. 붉은말이란 성경을 거짓되게 이해하는 자들로서, 자신속의 결점을 변명하거나 타인들을 저주하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런 식의 이해성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된다. 검은 말은 흰말과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따라서 검은 말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성경을 하느님의 계시로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바, 검은 말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 글자의 어느 일부를 끄집어내어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듯 소란을 피운다. 즉,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일부의 규정들을 지키며 자신들이 꽤 경건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와 선함에 관해서는 눈썹 하나도 까닥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23-2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넷째 봉인이 떼어짐에서 “푸르스름한” 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은 진리를 행할 마음도 없고 진리를 이해해 보려는 의지도 없는 심정과 지성의 양쪽 모두를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의 비유에서 장가들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한 사람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여지가 그들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이해성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기수는 죽음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뒤돌아서면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다.” 다섯째 봉인이 떼어짐은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봉인의 떼어짐은 구원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숨겨지기만을 원했다.

마태복음 23장 23-24절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구절을 되새기면서 본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기본 상응 공부

흰 말 =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붉은말 = 선해지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

질문 정리

-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17) 네 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17)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39

일곱째 봉인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는지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췌물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렁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렁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썼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 *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진리이다.
- *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해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의 책에 붙어 있던 봉인 중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떼어짐에 대해서 공부했다. 제 7장에서는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도록 허락되기 전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로 인해 선한 영혼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봉해두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제 7장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주 명백하고 단순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즉, 타인이 우리의 의지까지 나쁘게 만들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속의 약함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함이 가능해지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은 주님의 진리가 밝혀지는 마지막 순서이다. 앞서 우리는 첫 공부과정인 창조의 이야기들에서 여섯째까지의 날들이 지상에 있는 인류로부터 형성된 첫 교회의 발달이나 준비 또는 단계들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이러한 발달의 완성을 표현한다. 숫자 일곱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숫자는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숫자가 안식일과 연결되며, 말씀 속에서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데 종종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섯째 봉인까지 떼어진 후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잠깐의 쉼이 있게 된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진 다음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일곱 나팔 중 여섯째 나팔 소리에 따른 이야기가 전개 된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새 장과 시리즈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다.

말씀 안에서 나팔은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지고 명백하게 함”을 표현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재고해 보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의 나팔 소리는 시나이 산으로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예리고성 주위를 행군하되 켈을 멘 성직자를 따르면서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으나,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돈 다음 성직자가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또한 관관기 7장 16-22절에서의 관관 기드온은 부하 삼백 명에게 각기 뿔 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 자신이 나팔을 불면 모두 일제히 나팔을 불고 손에 든 단지를 깨도록 하여 적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도록 하여 쉽게 적을 정복했다.

본문에서는 각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하나의 파멸이 뒤따르고 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첫 기독교회에 거행된 심판에 대한 상징이다. 앞서 우리는 지상에 태초 이래로 계승되어온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수차례 살펴보았다. 그들을 순서대로 보자면,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이다. 각 교회는 각각 주님께에서 오는 진리의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서 선한 자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으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변하거나 거절되기도 했다. 심지어 각 교회 안에서 악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일부라도 구하시기 위해 악의 범람에 조처를 취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이전 교회에서 남겨진 일부의 선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새로운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첫 기독교회의 시작이었으나 그 교회 역시 예전 교회들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임과 지상에 마지막 기독교회가 건설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두 장에 걸쳐 거행된 본문의 파멸은 악과 거짓이 어떻게 첫 번째 기독교회의 사람들의 영혼에 있는 선함과 진리를 점진적으로 파괴시키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첫 번째 기독교회인들 대부분은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속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을 감출 수 있지만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육체와 더불어 우리 속을 감출 수 있는 껍데기를 남겨 둔 채 우리 속에 든 것만을 가질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은 우리가 자신에 관련된 진리에 대면하게 될 때인 저 세상에서의 영적인 심정상태 곧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본문은 지면관계상 상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 또는 「계시록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네 번째까지의 파멸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별에 거행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땅은 우리의 삶 중에서 선함에 관련된 것을 그리고 바다는 우리의 기억 안에 모여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강과 샘물은 주님으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상징한다. 해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달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리고 별은 주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상징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서 삼분의 일이 파괴되어졌다고 말해진다. 삼분의 일에서의 숫자 3은 우리속의 세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 관련되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소리란 교회 속에 있는 악들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랑과 진리와 선함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제 9장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소리로 시작되며, 지옥이 열려서 지옥속의 사람들의 질과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해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나팔로 노출되는 이들은 교회속의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가 학식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자부하며,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여섯 번째 나팔로 노출된 이들이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타인보다 슬기롭다고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을 믿노라고 이미 고백한 신자들이므로 설사 자신이 좋아하는 데로 살더라도 생활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결국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밝혀준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알고 본문을 읽는다면, “과연 누가 이처럼 격렬한 재난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인간이 몸으로 저지르는 악행은 처벌을 수단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처벌 때문에 신호등을 억지로 지키는 것처럼 악한 행위 역시 그렇게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있게 되는 것 곧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욕망은 처벌이라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이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이다.

기본 상응 공부

나팔 =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져 명백해짐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로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덩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로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18) 쭉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리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세째는 옥수로, 네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파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에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교리 요약

- * 우리의 “거룩한 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규율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천국적인 원리로 건설된다.
- * 새 예루살렘은 삶의 이상향을 그려주는데, 이를 향하여 각 개인들이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다.

해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과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그분의 재림까지의 사이에 영계에 모아진 기독교회인들의 영혼의 본모습을 밝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었던 것들에 비례해서 천국에 가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발견하여 자신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상태를 “가상의 천국들”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태가 깨어지는 것의 시작이 제 6장 4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는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진 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라고 읽게 된다.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더불어 악과 천국의 권능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악은 그들의 마지막 처소인 지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선한 이들은 주님에 의해 안전하게 간수되었던 곳으로부터 올려질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의해 밝혀진 더욱 심오한 진리들로 훈육되어 진정한 기독교인의 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천국과 더불어 지상에 형설될 새 기독교회는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밝혀지는 더 깊은 진리를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새 하늘과 새 교회에 소속될 것이다. 본문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교회에 관한 것이다. 말씀에 있는 진리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이해가 주어졌음이 21장 1-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광경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약칭하여 “새 교회”라고 부른다.

성의 경계를 지어주며 보호해주는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하고, 그 성이 가진 열 두 대문이란 선한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든 진리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성벽의 주춧돌이란 기독교 신앙에 근본이 되는 큰 진리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열 두

사도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앞서 수차례 언급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대문과 주춧돌에 썬어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보석들이란 말씀 안에 든 갖가지 진리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들을 응용해 보도록 빛을 주실 때 진리들은 제각기 아름답게 진리의 빛을 반투명하는바, 이는 우리가 알게 되는 각 진리들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각 면에는 문이 셋씩 있었고, 각 대문은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출발하여 서로가 모두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지식을 그들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더욱 선하게 되고자 주님의 진리를 진실로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으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본문의 마지막 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의 빛은 우리가 우리속의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될 때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2절과 23절로 의미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책과 우리 삶의 책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우리가 염두 해야 할 구절은 16절이다. 길이는 성경에서 사랑 또는 선함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넓이는 진리에 대한 이해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높이는 “제각기의 수준에서 함께 하는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진리를 더욱더 배워가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진리를 실천함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 주님께 도달되고 그분의 영 또한 우리에게 내려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성을 측량했던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말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성서 공부 과정, 즉 한 해 동안 배웠던 모든 교리를 거룩한 성의 성벽과 주춧돌의 한 부분으로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 여러가지 진리들을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엮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본문에 있는 빛나는 보석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을 더욱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성벽이 아름답게 투영되는 벽옥으로 쌓여 나타나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본 상응 공부

성 = 교리

거리 = 삶의 길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12) 주님이 성전이시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을 숙독하자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